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대환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월 2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경색정국이 1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이다. 대통령이 각계 원로를 만나고 영수회담이 열리는 등 대화의지의 명분쌓기가 한창이다. 좀더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지한 대화를 통해 노동지, 사용지, 정부 3자의 대타협이 있기를 기대한다. 부처님은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처방을 내리듯이, 듣는 사람의 실정을 알고 거기에 알맞는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귀족사회의 말을 알고 써 왔으면서도, 일반 민중들의 언어인 마가다의 사투리로써 법을 설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편집자 주〉

자주모여 정의를 논하고…

남을 충고하려고 할 때에는 마음속으로 다음 다섯가지를 생각하고 충고해야 한다. 첫째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말하고, 알맞지 않을 때에는 말하지 않는다. 둘째 진심에서 충고하고 거짓되게 하지 않는다. 셋째,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하고 거친 말을 쓰지 않는다. 넷째, 의미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일에는 말하지 않는다. 다섯째,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성난 마음으로는 하지 않는다. 〈증지부경전〉

화합이란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고 상하가 화동하여 서로 공경하고 순종해 어기지 않으며, 법을 받들어 근기한 바를 알고 그 제도를 어기지 않는다. 〈장아함 유행경〉

여래는 중생의 성품을 잘 알아 거기에 알맞은 법을 설한다.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배꼽기를 권장하고, 생활에 규범이 없는 사람에게는 계율을 지키도록 권장한다. 화 잘 내는 사람에게는 인욕을, 게으른 사람에게는 정진을, 마음이 흩어지기 쉬운 사람에게는 선정(禪定)을,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사람(慧)을 권장하고,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가엾이 여김(悲)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喜)을, 사람하고 미워하는 애증의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버림(捨)을 권장한다. 〈화엄경〉

욕심에 끌리고 소망에 붙들린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견해를 초월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한 바를 그대로 행한다. 그는 또한 아는대로 떠들어댈 것이다. 〈숫타니파타〉

차라리 진실한 말을 해서 적을 만들지언정, 비위에 맞추는 말을 해서 친우를 만들지 말라. 차라리 바른 가르침을 설하고 지옥에 떨어질 지언정, 그릇된 가르침을 설하고 천상에 태어나지 말라. 〈보살본연경〉

고기는 그물로 잡지만 잡고 나서는 그물 생각을 잊어버리듯이, 말에 의지하여 뜻을 알지라도 이미 알았으면 말을 잊어야 한다. 〈달마어록〉

하나로 포럼 선정회 25일 출범 15면
불교문화대학 늘고있다 13면
관광사찰은 문화포교 도량 7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안동 봉정사에서 발견된 현존 최고(最古)로 추정되는 고려후불벽화. 고려시대 영산회상도로는 유일한 이 벽화는 채색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등 전체적인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안동 봉정사=고염배 기자〉

안동 봉정사서 발견 '국보급 영산회상도'

最古 고려벽화

東大 문명대교수 1450년 이전 제작추정

지난 16일 경북 안동 봉정사 대웅전 불상 뒤에 걸려 있던 아미타후불탱화(가로 3.6m 세로 4.18m)를 보수하기 위해 떼어내면서 발견된 대형벽화는 현존 우리나라 최고(最古)이자, 고려시대 영산회상도로는 유일한 국보급 문화재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고려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후불벽화는 가로 4.12m 세로 3.52m 크기에 '영산회도(靈山會圖)'라고 쓰여져 있으며, 석분을 고르게 바른 흙벽에 직접 그려진 것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이다.

이 벽화는 넓고 희려한 꽃무늬 테두리 안에 높이 360cm 너비400cm 크기의 화면으로 하단부에 가로로 길게 균열이 벌어졌고, 불상들의 얼굴 부분이 마멸되었으며 색깔이나 무늬들이 희미한 상태다. 그러나 청·적·황·백색 등 채색상태가 전체적으로 뚜렷하고 벽화 하단에는 붉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제작자 이름 등이 쓰여져 있을 정도로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이 벽화가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화면 배치구도, 불상군 형태, 채색 등이 고려불화의 양식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 화면 상단 중앙에 석가삼존상을 배치하고 그 주위로 10대 제자, 보살들이 주위와 상존 아래 배치돼 있어 14세기 전반기의 미륵하생경변상도의 배치와 비슷하며, 미륵하생경변상도가 1350~1465년 사이의 양식임을 감안할 때 이 벽화는 빠르면 14세기 후반기에서 1450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불상군 형태나 채색 역시 1465년을 하한(下限)으로 하는 불화 특징과 비슷해 현존 최고(最古)의 고려벽화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봉정사 후불벽화를 직접 관찰한 문명대교수(동국대 불교문화재연구소장)는 "이 벽화는 고려불화의 전통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현존 최고(最古)의 초대형 후불벽화"라며 "현재로서는 사찰에 봉안된 가장 오래된 벽화이면서 고려불화 가운데 영산회상도로서는 처음인 것으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해방이후 최대의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한명우 기자〉

노동법시국 혼란 '법회 차질'

자선탁발 2월말로 연기…새연등회 수계도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시국혼란으로 불교행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명동과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이 직접 참석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민족이 하나'임을 깨닫는 동체대비 자선탁발 행사가 2월말 동안거해제 이후로 연기됐다.

조계종 사회부는 현시국 상황에서 대규모 야외법회 및 행사가 적절치 않아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새정치국민회의 불자의원들의 모임인 새연등회(회장 박상규)는 지난 16일 성도절을 맞아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회원 및 불자당원 수계법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노동법 날치기처리에 항의하는 농성에 합류키로 해 법회를 설(2.8) 이후로 연기했다.

또 외환은행불교행우회(회장 이재민)도 지난 15일 창립8주년 기념법회 및 성도절 철야정진을 봉행키로 예정했으나, 법회와 철야정진을 봉행하지 않고 기도회로 축소해 진행했다.

대선후보자질 거론

월주스님, 국민통합 중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12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역감정을 초월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으며 △붕당정치에 물들지 않은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지난 22일 총무원을 예방한 이한동의원과의 대화에서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경제정의·도덕성을 앙양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97 문화유산의 해 선포

'97 문화유산의 해 선포식이 지난 21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축하공연에 이어 열린 선포식 행사에서는 김영수 문화체육부 장관의 문화유산의 해 선포와 한병삼 집행위원장의 대통령 축하인사 낭독, 고병익 조직위원장의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축창(祝唱), 영상물 상영 등이 이어졌다.

선포식에는 이수성 국무총리, 임창순 문화재위원장, 이세기 국회문체공위원장,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각급 기관장, 단체장, 시민, 학생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5개년계획 수립

월주총무원장, 4대 중점사업 발표…자문委 구성도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0일 "'종단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다가올 21세기를 준비해갈 것이며, △전법교화 △총무행정의 체계화 △승가교육제도 정착 △민족문화창달 등을 올해의 4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월주스님은 불교회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를 전법의 해로 정하여 불자들을 조직화하고 비불자들에 대한 포교를 강화하며, 계달음의 사회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법의 해와 관련해 월주 총무원장은 주요지역의 사찰을 전법도량으로 지정하고 전법교화의 중심도량이 될 불교종합회관의 착공, 전국불교지도자대회 개최 및 신도입문교육의 의무적 실시를 구체사업으로 제시했다.

월주스님은 '종단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팀 및 포교 교육 사회 재정 행정분야에 밝은 15인 이내의 승가·재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 "전통적 가치기준의 붕괴, 인간소외의 심화, 부의 소수집중, 환경오염확대 등의 심각한 사회병리에 대처할 새로운 가치기준의 형성, 21세기의 우리 사회와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월주스님은 "종무행정 체계화를 위해 주요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올해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각종 법인의 종단등록 유도, 사찰재무감사의 정예화·유형별 주제감사를 실시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월주스님은 또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이전불사 본격추진, 학림 설치의 확대 및 비구니 전문학림 개설, 행자교육의 내실화와 승가대학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승가교육제도를 정착시키고 사찰환경 보존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책을 읽기는 계절 ①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큰스님/법어/모음집

현대불교신문 연중 신국판 340쪽 값 7000원
이 시대에 빛이 될
현존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책을 읽기는 계절 ②
삶은 苦가 아니다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신국판 288쪽 값 4000원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을 위한 경전 공부 ①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경전 읽기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이재열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6,000원
팔만 사천 경전을 가로지르는 통쾌한 해설!
불교 교리 전반의 이해를 돕는 풍부한 비유!
경전에 입각한 수행 방편의 제시!
사람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났으며 정법을 만났다. 이제 남은 일은 성취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야 한다. 기다가 산이 막히면 넘고, 강을 만나면 건너야 한다. 순경과 역경을 건너고 이양과 칠쾌를 깨뜨려야 한다. 무엇으로 건너고 무엇으로 깨뜨릴까? 반야의 배(般若船)로 건너고 금강의 칼(金剛劍)로 깨뜨려야 한다. 반야의 배요, 금강의 칼, 그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게이다.
— 본문 중에서 —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 737-0695 (영업부), 737-0691(편집부) 팩스 : (02) 737-0696

사 설

조계종 5개년계획에 바란다

지난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계획을 중단기적으로 밝혔다. 5개년계획은 크게 네 부문에 중점이 두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포교와 전법, 종무행정의 체계화, 승가교육의 제고, 사찰환경보존과 불교문화운동 등이 그것이다.

첫째, 포교와 전법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불교인구의 결속과 저변확대를 위한 더없는 방편이다. 그동안 교육원과 포교원을 별원화하여 운영해오며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한 '전법 5개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종합회관을 건립하고, 중앙신도회를 결성하여 사찰 교구신도의 활동을 진작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격적 신도교육의 장으로서의 전법도량을 지역별로 지정, 지원하겠다고 한다.

둘째, 종무행정의 합리화와 체계화는 사부대중의 오랜 염원이었고, 그동안 불교계의 오랜 숙제였다. 삼보정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처분과 이용을 막기 위해 전산화는 기본적인 장치이다. 종단의 재산뿐만 아니라 직할 지방교구 사설 사암 등의 재산도 등록을 유도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재 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무감사를 정례화하고 유형별 실사를 강화한다고 했다.

셋째, 승가교육은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총무원은 승가의 자질을 향상하고 전문 식견의 앙양을 위해 승가교육의 기초 기본 전문 재교육체계를 정착시키고 심화시켜가겠다고 했다. 행자교육을 내실화하고 교학의 전통과 강맥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갈 것이며, 교수요원의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인 학림과 승가대학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넷째, 사찰 환경보존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교문화의 창달을 위한 제반 사업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했다.

회견문은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총무원의 노력을 알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무원의 의지와 노력에 우선 박수를 보낸다. 그러면서 두가지 주문을 덧붙이고자 한다. 하나는 각각의 시행안에 대한 구체적 입안과 상세계획을 추가로 확정 발표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업 사이의 연계와 체계를 확인 검증할 수 있고, 각 사업이 사부대중의 승인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주문인데, 총무원은 한국불교의 중추기관으로서 새로운 세기를 맞는 불교의 전망을 보다 선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승가교육과 포교에 있어 불교는 다가올 정보화와 탈산업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양식과 구원의 기대를 어떻게 제시해야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불교의 발전은 교리 자체에 담긴 이론적 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불교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기존에 형성된 불교의 교리와 관행, 계율과 의식이 새로운 시공의 환경에 맞닥뜨리면서 창조적으로 자기변신한 결과이다.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은 불교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도 지금 불교는 여전히 "전통 강원교과목의 장점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 깨달음의 내용도 바뀌어야 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며 공유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도 이같은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믿는다. 승가교육은 전통의 심화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와 학문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총무원의 발전계획에 승가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담기를 촉구한다. 그래야만 전통교육도 보존할 수 있다.

열린마당

불교종합회관 건립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전법교화의 중심도량으로 불교종합회관 건립을 추진, 올해안에 착공에 들어가 99년 준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회관건립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조계사 인근 4천여평의 부지에 들어설 불교종합회관은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최대의 불사가 될 것으로 보여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자들의 기대와 함께 한국불교의 상징물을 세운다는 불사에 걸맞는 준비과정과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 75년 세워진 현 조계종 불교회관. 영욕의 현대불교사를 간직한 이 건물은 곧 철거되고 현대식의 대규모 불교종합회관이 들어선다.

'사부대중의 구심처' 되도록 정성들여야

성일 〈신흥사 청소년수련원장〉

타종교에서도 부러워하는 견지동 불교거리에 조계사 부처님 도량이 성취되어 수많은 서울시민의 쉼터가 되는 그곳에 대규모 불교회관이 건립되는 일은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다.

먼저 조계사 도량 확장불사에 큰 원력으로 정진하시는 조계사 주지스님께 찬사를 보내드리며 이제까지 종단의 숙원사업이었던 불교회관 건립을 시행하시는 개혁종단의 집행부 스님들께 한없는 기쁜 마음을 드리고 싶다. 이 불사는 우리 종단의 힘을 모으는 구심처가 되어야 하는 중요사업인 만큼 정성과 지혜를 모아야 할 일이다.

누구든지 이곳을 찾게되면 불교의 모든 볼일들을 다 볼 수 있는 다목적 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처님이 계시니 예불드릴 수 있고,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이 함께 있어 모든 행정을 처리할 수 있고, BBS btn 신문사들이 한곳에 있어 매스컴 활용에 편리하고, 대법회 대음악제 세미나 등 큰 불교행사를 불교회관에서 하면서 일반인들은 불교를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식장을 운영해 인생의 새출발을 부처님 품속에서 시작하니 얼마나 좋은가.

또 도서관 전시실 등에서 불교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상설 상담실을 개설하여 불교에 관한 신앙 및 모든 것을 상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불교 전통식당과 찻집이 운영되어 편리함이 더해졌으면 한다.

여론수렴 미흡…"졸속불사 방지 감시하자"

성태용 〈건국대교수·철학〉

우리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불사는 무엇인가? 천만 불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그 의식을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불사를 불교계의 힘을 모아 이룩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에서 가장 마음을 써야하고 또 쓰고 있는 일은 바로 이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 총무원에서 발표한 조계사 주변 4천여평을 확보하여 최대규모의 불교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이런 고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는 이미 시간이 늦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러한 큰 계획의 갑작스런 발표에 모든 불자들은 한편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 놀랍고 어리벙벙한 기분이 드는,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사전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또한 이런 큰 불사계획이 나올 때마다, "이번의 일은 잘 될까?" 하던 불자들의 의구심이 이제는 엄한 감시의 눈으로 작용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이다.

과시적인 졸속불사의 예를 만들지 말고, 교계의 해묵은 바람들을 시원하게 해결하면서, 또한 앞서가는 불교의 모습을 보이는 첨단의 시설들을 모아 불교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포교와 문화의 공간을 이룩하기를 기원한다.

옛 양식 답습넘어 미래불교의지 담아야

조정식 〈동국대교수·건축공학〉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건축에 있어서 세기말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세기동안 축적된 기술과 사회적,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여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1999년까지 현 조계사 경내에 불교종합회관이 건립된다고 한다. 21세기를 바라보는 또 한번의 세기말의 시점에서 한국 불교에 신기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기획사업일 뿐 아니라, 건축적으로도 현재의 건축기술을 응용한 전통건축의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현대적 의미의 불교건축이 실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불교계에서의 현대건축에 대한 이해와 건축가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아직까지 불교적 공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지나치게 불교건축의 상징성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하면 한옥의 지붕형태나 외벽에 돌을 사용하는 것이 전통건축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여기는 지금까지의 방법을 답습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계와 건축계에서 미래의 불교상에 대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가져야 하며, 다수의 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는 경쟁설계로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후세에 전할 불사(佛事)라는 차원에서 건축가에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며, 건축가에게 적절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주최측에서는 치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고침 111호 2면 '현대 만평'란에서 스님의 가사착용이 바뀌어 그려졌기에 바로잡습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0691

현대만평 박구원



도심속의 안식처로…

목어

柳美里씨의 화두

"저는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지요. 어느쪽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아니다'(부조화)를 소중히 하고 싶습니다." "풍요의 시대를 맞아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풍요속에서 '없다'는 것은 곧 '엄청난 자유'를 의미합니다.

저는 고1때 중퇴했으니 일본같은 학력사회에서 볼때 '아무것도 가진게 없다'에 속합니다.

가족도 초등학교시절에 뿔뿔이 흩어져버려 없습니다. 중학교때엔 여러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저는 '아니다' '없다' 투성이기 때문에 역으로 그것도 '풍요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아니다'는 '그렇다'이며, '없다'는 곧 '있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바로 자유와 풍요함을 뜻합니다."

"가족을 테마로 글을 쓸 생각입니다. 가족이란 테마는 결코 좁은 범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소된 사회입니다. 가족을 잘 그리면 국가와 민족이 나온다고 봅니다. 가족은 작으면서도 매우 큰 단위입니다."

소설 '가족 시네마'로 일본에서 가장 권위있는 문학상 아쿠타가와(芥川)상을 수상한 재일한국인2세 柳美里(28)씨의 말이다. 종교는 알수 없지만 그녀의 말에서는 불교적 사유(思惟)를 만날 수 있다.

'아니다'에서 긍정을 찾고 '없다'에서 풍요와 자유를 찾는 것은 부정의 부정을 거듭하면서 절대 긍정의 세계로 들어가고, 비우고 또 비워 무소유 즉 텅빈 충만에 이르는 공부와 다르지 않다.

'사람은 모두 죽게 마련이다'며 집요하게 죽음을 생각한 것 역시 '나는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정진이었다.

초등학교때부터 '이지메'를 당했으며, 밤중에 외로움이 밀려왔을때 전화걸 친구조차 없었다는 柳씨. 그녀의 가슴속에 사무치게 각인된 '외로움' '가족부재' '애정결핍' '자살미수' 등은 그녀를 성숙시킨 화두였다. 참구하고 또 참구하여 결국 그녀는 주위의 박수속에 홀로섰다. 립스틱을 바르지 않고도 기자회견에 나설 수 있을만큼 중심이 잡혀있었다.

본사 사령

김주일
윤기석
강지연
김정은
命 편집국 취재부 수습기자
김종열
命 경영관리국 영업부 수습사원
남춘우
命 편집국 전략정보기술팀 사원
〈1997년 1월 25일자〉

禪茶一如의 즐거움
茶園녹우정산 736-3782

선운사 도솔암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도보궁이라 심오한 적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솔암 성지순례 및 방생법회 안내

"한 곳에서 방생도 하고, 보궁도 참배합니다"

무료 공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전 연락주시면 1,000명분까지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솔암 경내 보물 제1200호 마애석불


도솔암 경내 도솔천 내원궁

선운사 도솔암은 역사가 1,400여 년이 넘은 백제고찰로서 해동제일의 지장기도 보궁입니다.
또한 경내에는 보물 제280호 지장보살과 보물 제1200호 마애석불이 모셔져 있고 천연기념물인 동백꽃과 상사꽃으로 유명한 서해제일의 기도영험도량입니다.
도솔암 주위에는 신라 진흥왕의 기도지인 진흥굴과 용문굴의 절경이 있고 또 500m 이내에 맑은 계곡물을 막은 5만 평 규모의 거대한 저수지(도솔제)도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천애의 방생기도도량인 저수지(도솔제)에는 100여 대의 대형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도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불자님들을 위해 이번에 선운사 큰 절에서 도솔암까지 대형버스 길을 닦았고 도솔암 입구에 천여 평의 주차장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한 곳에서 방생도 하고 해동제일의 지장보살도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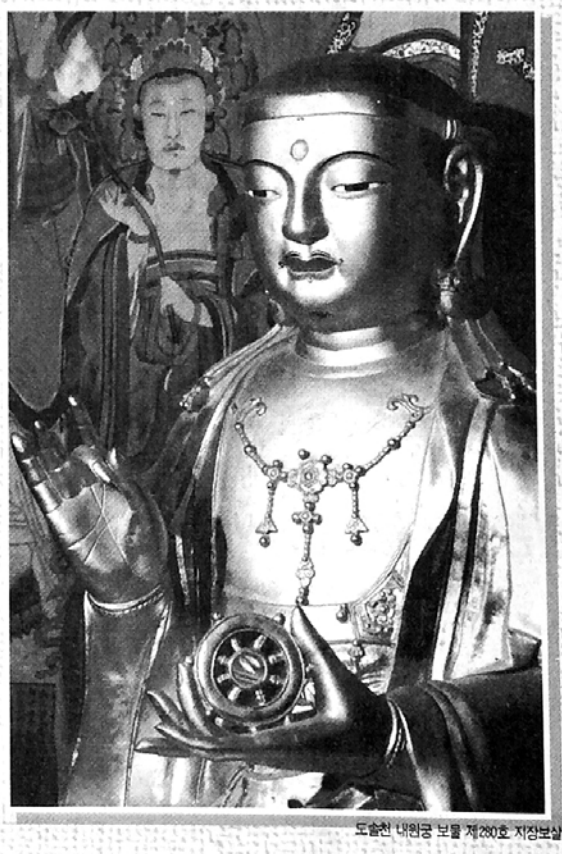
도솔암 가는길

승용차편
1. 경부고속도로 이용 호남고속도로로 진입
   정읍I.C에서 내려 좌회전 고창방향 흥덕 선운사까지 15km
2. 남해고속도로나 88고속도로를 이용 호남고속도로로 진입
   백양사I.C에서 내려 좌회전 고창읍까지 10분
   고창읍에서 선운사까지 20km

열차편
서울역~정읍역 새마을 또는 무궁화열차 이용
정읍역에서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버스편
강남 고속터미널~고창읍이나 정읍에 도착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부산, 경남, 대구, 경북방향은 광주고속터미널에서 하차 선운사행 또는 고창행 버스를 이용하여 선운사에 도착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보궁참배 및 방생법회를 오실 때 사전연락을 주시면 무료공양 및 안내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도솔천 내원궁 보물 제280호 지장보살

해동제일 지장기도보궁 선운사 도솔암

전화 : (0677) 64-2861, 63-4612 팩스 : (0677) 64-8317
문의처 부산·경남 : (051) 632-0383/대구·경북 : (053) 255-2838/서울·경기 : (02) 238-9910

내실 다지기 역점… 21세기 준비

조계종 월주총무원장 97사업계획 발표의미

지난 20일 발표한 월주 조계종총무원장의 새해사업계획은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기보다는 개혁 이후 2년여 동안 이뤄온 안정을 바탕으로 종단 내실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같은 방향설정은 월주스님의 발표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2년 동안 종단은 사부대중 모두의 화합과 정진을 통해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잘못된 관행과 풍토를 척결하고 커다란 변화와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이다. 이같은 평가는 교계내외의 전반적인 평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전법의 해를 선포한 것은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고, 승가교육의 기본틀을 다져 안본말사의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월주스님은 전법을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정신적인 고는 물론 사회체제나 제도가 가져다주는 고를 함께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적극적인 전법관을 밝혔다. 총무원 관련 부서와 포교원에서 세부사항을 마련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주 총무원장의 의지와 이념을 뒷받침할 작업이 과제로 남아 있다.

21세기 대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팀 및 자문위원회 구성 발표는 불교가 사회적 병리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자신감과 불교의 역할을 강조한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기존의 각종 위원회 활동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야무야했던 점에 비추어 당위성 강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주문이 일반적이다.

이번 회견에서는 또 중앙신도회 결성과 관련해 초파일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월주스님은 "봉축 전까지 종단 안팎의 명실상부한 재가신도 대표기구를 구성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종단에서 만들어 이후 3년 정도 뒷받침하는 것은 승단의 할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는 기업인 송모씨의 회장내정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신도회에 대한 지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종단의 간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 신도단체 구성 움직임과 관련해 이후 조계종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0일 97년도 종무계획 발표를 통해 전법과 승가교육제도 정착 등 4대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전법의 해 지침 제시… 구체적 내용 미흡

신도회 초파일前 결성 시사 '의지 재다짐'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전법의 해를 맞아 새해사업 목표를 △포교행정 체계화 및 포교조직 활성화 △신도등록 활성화 및 전산화 △연수프로그램 개발 △신도입문 및 교육체계를 확립으로 정했다. 특히 금명간 전법의 해 추진위원회를 구성, '전법 5개년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교원 새해사업

신도등록 전산화·국제포교활동 장려

전법도량 지정등 포교조직 대폭 강화

포교원이 역점을 두는 것은 포교행정체계화 및 포교조직 활성화 추진이다. 본·말사 포교규정 제정, 전법도량 지정 등 각종 포교활동을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포교원과 본·말사 포교국을 연결하는 포교행정 체계를 일원화한다. 또 전법도량으로 지정된 사찰에는 불교교양대학을 비롯 신도교육기관을 설치토록하고 정기적으로 포교의 현황 및 분석을 실시해 신도교육을 의무화하는등 포교조직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도등록을 활성화하고 업무효율을 위해 전산화를 실시한다.

신도등록을 통해 사찰신도를 결집하고 사찰, 교구, 지역신도회를 결성해 중앙신도회 출범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법의 해' 지정과 함께 포교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연수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수 실무자들의 대외연수 참여와 자료수집 및 개발을 통해 새로운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해 연수를 통한 포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종단의 신도교육체계 정립과 재가신도의 일관된 신행생활지도를 위해 지난해 펴낸 〈불교입문서〉에 이어 〈불교교리서〉를 발간한다. 신도입문지침서는 우선 모범적인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찰을 선정, 배포할 계획이다.

또 포교원에 등록된 교양대학 가운데 학제와 교수진, 기타 필요요건을 갖춘 불교대학을 대상으로 종단인가제를 실시한다.

김종근 기자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업 보따리 내려놓자



강 건 기
〈전북대 교수·철학〉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때 제자들은 1천㎞ 떨어진 죽림정사에 있었다. 하루는 사리불이 목련존자를 찾아가니 평상시와는 다르게 밝고 평안했다. 그래서 사리불이 목련존자에게 물으니 '부처님과 법담을 나눠서 그런가 보다'고 대답해 깜짝 놀랐다.

우리의 눈과 귀가 청정하면 부처님과 언제라도 법담을 나눌 수 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란 불신이 충만한 법계이며 온 우주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청정하지 못하다. 알고보면 보고도 못보고 들어도 못듣는 것이 우리 일상의 모습이다. 만약 말 한마디, 생각한번 잘못되면 우리 마음, 즉 아뢰야식에 쌓여 작용을 계속해 버린다. 청정한 바탕을 등지고 살고 있는 것에서 수행의 완성은 없다.

업 보따리로 쌓인 마음 보따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청정해질 수 없다. 마음보따리에 엉켜진 것을 풀어야 한다. 이것이 정화됐을 때 그것이 깨침의 경지이다.

참회는 이 순간을 잘못 살아왔고 좋지 않았던 기운을 몰아내는 수행법이다. 오늘 이전까지를 깨끗이 청산하는 새살림을 살겠다는 마음이다.

참회항목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이 세상의 어떤 대상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둘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향해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셋째, 다른사람에게 무시된 것 같은 경우에 강한 반발심이 일어나는가 아닌가? 넷째, 다른 사람이 잘됐을 때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교의 참회는 사참(事懺)에서 이참(理懺)까지 가야 완전해진다. 사참은 우리 마음을 뇌란시키는 분노 원한의 마음을 전부 꺼내놓고 죽어도 못놓을 업보따리를 내려 놓는 실천작업이다.

또 이참은 참선을 통해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에 초점을 맞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본래 마음자리에 들어가 실제 우리 마음이 우주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자신의 바른 삶을 위해 참회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 바탕은 우주와 둘이 아닌 일체존재로 밝고 청정한 성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전북불교대 동계수련회 강연에서〉

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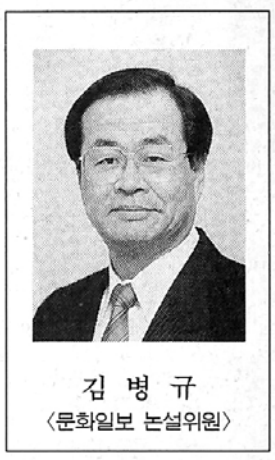
부처님의 대화법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을 꼽는다면 〈천수경〉이 단연 으뜸일 것이다. 스님이든 세속인이든 구별없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천수경〉을 가장 많이 독송한다.

이 〈천수경〉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말에 관한 진언이다.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부터 독송토록 체계화돼 있다.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입을 깨끗이 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다. 욕설이 아닌 깨끗한 말, 나만이 아니라 남도 이롭게 하는 말, 이웃뿐 아니라 세상만물과 화합이 되는 말만을 하겠다는 부처님과의 약속인 것이다.

"입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천수경〉에선 망어(妄語·거짓말), 기어(綺語·발림말), 양설(兩舌·이간질하는 말), 악구(惡口·나쁜말)를 참회토록 가르치고 있다. 부처님이 구업의 죄로써 이같이 네가지를 적시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자주 지을 가능성이 큰 죄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같은 네가지 구업의 죄만을 의식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 소극적인 인간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구업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걸음 더 진취적으로 나가야 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고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 부처님이 정구업진언을 〈천수경〉의 첫머리에 두고 가르치고자 했던 참된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김 병 규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화를 통한 의사전달이다. 대화란 자신의 말만을 고집하고 자신의 뜻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통고일 뿐이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영수회담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닌 결과를 나타낸 것은 각자의 뜻만을 전달하려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걱정하는 파업사태를 풀겠다는 목적보다는 서로의 이익추구에 더 열중한 것이다. 영수회담의 결과가 3당3색으로 나온 것은 이같은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처님의 교화방식은 대화법이었다. 무지한 중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결코 글로써 전달한 적이 없다. 수많은 경전이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형식으로 전개된 것은 대화법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글보다는 말이 의사전달방식으로 더 정교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대중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수많은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우리가 한번쯤 음미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왜 그토록 많은 대중이 따르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2천5백여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사상 가장 숭고한 진리로 받들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심이 없는 깨끗함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주의주장에 따라 오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충분히 이해시켰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근기, 능력, 수준에 따라 대화, 즉 가르침의 방식과 비유를 달리했다. '…을 해야 하느니라'가 아니었다. 시쳇말로 하자면 대화를 통한 이해와 설득이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하나로 융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화성공의 요체는 진실이다. 자신만을 내세우고 뽐내며 남을 멸시하는 말과 행동으로는 안된다. 존경을 받기는 커녕 상대방을 설복시킬 수도 없다. 이번 노동법 개정 이후 빚어진 파업사태에서 이른바 넥타이부대가 동참하고 안기부법에 대한 원천무효가 외쳐진 배경엔 현 집권세력의 오만스러움에 대한 반감도 짙게 깔려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의심스런 배후세력이 개재된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근로자들의 '상급단체 복수노조 3년유예' 반발에서 촉발된 파업사태에 왜 원천무효주장이 나왔는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진실한 말에 힘이 있다

혼자만이 잘났다는 우월심은 절대 버려야 한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겸허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런 삶에서 융화와 재물이 생성되고 복이 온다. 말을 할 때, 기교를 부릴 필요도 없다. 진실된 말엔 힘이 들어있는 법이다. 말이 서툴고 어눌한 사람에게도 추종세력이 모여드는 것은 그의 말속엔 힘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 힘이란 실천을 보장하는 역동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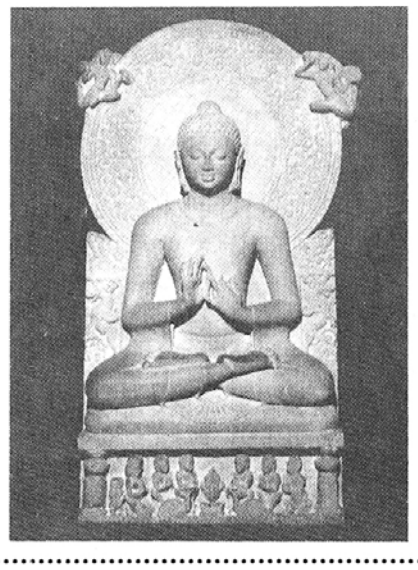
일상생활에선 가능한 한 말을 아껴야 한다. 하지만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을 염려가 있다. 사심, 욕심이 없는 말, 아상 인상을 소멸시키고 나누는 대화만이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아시아나 항공 특별 전세기 운항
97년 2월 14일, 2월 21일 (2회)

인도 불교성지 순례

아시아나항공
인 도 정 부 관 광 국

아시아나 항공이 국내 최초로 운항하는 인도 특별 전세기로
저렴하고 편안하게 성지순례를 다녀오십시요



특 전
1. 서울 - 델리 직항으로 빠르고 편안함.
2. 인도 국내선 이용으로 야간기차 이동 없슴.
3. 성지지역 최고급 호텔 및 최신버스 이용으로 안락함.
4. 한식 제공으로 식사문제 해결.
5.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안내인이 행사 진행으로 품격 높고, 차질이 없는 순조로운 성지순례 안내.

※연로하신 분에게는 특히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불교 성지순례전문 여행사는
항상 불자님의 뜻깊은 성지 순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참금 1차 : 2월14일 - 2월 22일(8박9일) 139만원
2차 : 2월21일 - 3월 1일(8박9일) 148만원

성지순례일정(9일간)
제1일 서울 - 델리
제2일 델리 -기원정사
제3일 기원정사 - 가비라성 - 룸비니
제4일 쿠시나가르 - 바이샬리 - 파트나
제5일 파트나 - 나란다 - 왕사성 - 부다가야
제6일 부다가야 - 니린선하 - 바라나시 - 녹야원
제7일 녹야원 - 갠지스강 - 아그라
제8일 아그라 - 델리
제9일 델리 - 서울
※ 상세한 일정은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예약문의 :
▲충청권▲ (주)금남관광 (042)252-7780
혜초여행사 (02)544-1533
▲호남권▲ (주)송광관광여행사 (062)222-7775

법회 안내

보현정사(02)493-3823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약사재일 매월 8일(음) 오전10시

구암사(02)877-2378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산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
반야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성지순례 매월 1회

봉은사(02)545-144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파라미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6시
구역연합법회 셋째주 월 오전10시
거사법회 매주 화 오후7시30분

광도사(02)979-5183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경전읽기 매주 금 오전10시

보리원(053)582-76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가족법회 매월 마지막주 오전11시

유일사(0571)858-0198

정기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안등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원각사(0392)33-0625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고불학생회 매주 토 오후3시
대불학생회 매주 목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월 오후7시
달마회 매월 14, 24일 오후6시
금강회 매월 10일 오후7시
거사림회 매월 둘째주 수 오후7시
군법회 매주 일 오후1시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금요법회 매주 금 오후7시

내원정사(051)242-0691

약사재일 매월 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맑고 향기롭게 1,000,000원 △부산대불련 가두캠페인 225,530원 △김효순 3,000,000원 △김용주 1,000,000원 △박서현 1,011,000원 △정순선 1,000,000원 △업승회 1,000,000원 △기타 35명 855,000원

〈23일 현재 총 64,522,640원〉

· 후원금 접수 : (02)3672-5373
· 국민은행 : 818-21-0179-960 예금주 : 최석호

"매년 5·18 위령 대재 개최"

광주사암련 새 회장 상명 스님



"5.18 영령들의 한 맺힌 원혼을 위하여 도청앞에서 영산대재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제10대 광주사암연합회 회장에 취임한 상명스님(삼정사주지)은 지역정토를 위해 승·재가를 막론한 사부대중의 화합에 기반한 불교의 사회화 대중화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명스님은 찬란했던 백제불교의 전통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불교전통예술공연을 통한 문화적인 가치를 전달하여 진정한 불교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 현안인 무등산 살리기 환경운동에도 적극 가담하여 수행과 기도의 상징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美 동국로얄대 이사장 취임

녹원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은 지난 25일 미국LA소재 동국로얄대학교 이사장 취임 및 이사회 개최를 위해 출국했다.

강원교구 종무원장에

백운 춘천석왕사 주지는 지난 18일 태고종 강원교구 종무원장에 선출됐다.

'나라와 인천시민…' 법회

도해 인천시불교연합회장은 지난 17일 로얄관광호텔에서 '나라와 인천시민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용궁사의 밤' 행사

정암 용궁사주지는 오는 2월 2일 오후6시 코모도호텔에서 신년하례 및 용궁사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6회 장학금 수여식도 겸한다.

'일민 예술상' 수상

서세옥 화백(한국화)은 지난 20일 동아일보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제2회 일민(一民) 예술상 시상식에서 수상하고 상패와 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

민학회 회장 맡아

김종규 삼성출판사 회장은 지난 21일 민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美서 한국불교미술 조사

문명대 동국대 불교문화재연구소장은 미국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불교미술 조사차 보름 일정으로 지난 23일 출국했다.

"한미사 해외연수도량으로"



고성 美 워싱톤 조계종 한미사 주지는 '97전법의 해를 맞아 한미사를 해외포교 연수도량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종단과 논의키 위해 지난 21일 일시귀국, 28일 출국했다.

스님은 지난 22일 포교원장 성타스님 포교부장 원혜스님과 만나 한미사가 연수도량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성타스님은 "해외포교 활성화를 가하는 일로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적에겐…' 출판기념회

이종구 중앙신도회창립준비위 상임의원(前 국방장관)은 지난 24일 국방회관에서 연설문과 지휘기록을 모은 〈군은 적에겐 전율과 공포의 대상이다〉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美 시라큐스大서 법문

김재웅 금강경독송회 지도법사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미국순회법회를 가졌다. 특히 21일에는 뉴욕주 시라큐스대학에서 '네 마음안에서 찾아라'와 '금강경의 가르침에 대하여'란 주제로 법문했다.

부불청 회장에 취임

문상구씨는 지난 19일 연제예식장에서 부산불교 청년연합회 회장에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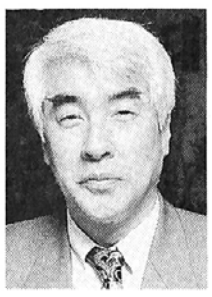
인사

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장 **효증**스님

한국불교연구원 제2대 이사장 정 병 조 교수

"지성불교·생활불교를 기치로 불교발전을 도모하고 중생 속의 불교로서 질적 전환을 이룩하는데 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일 故 이기영박사의 뒤를 이어 (사)한국불교연구원 제2대 이사장에 취임한 정병조교수(동국대)는 한국불교연구원의 제2도약을 위해 원력을 바치겠다며 취임소감을 피력했다.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미래불교의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오는 2천년까지 하나하나 이뤄나갈 각오입니다"

종교사회의 미래에 있어서 특성화된 불교사업회 발족 △원효문고(가칭)를 신설, 학술연구 진흥을 위한 불교출판의 활성화 △구도회 조직 전국 확대 △불교종합연수원 건립 등이다.

"교육사업·국제교류 등 주력"

정이사장은 "지성화·세계화를 이룩함과 동시에 세계정신문명 속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해야 하며, 올해로 23년을 맞는 한국불교연구원 중흥작업도 펴나갈 생각"이라며 '(사)한국불교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정이사장의 중장기 계획은 △미국 UCLA 한국학연구소 등 세계 불교연구기관들과의 공동 연구 및 수련 △불교연구의 다변화 및 인접학문과의 교류 △한국불교연구원 부설 원효학당의 전문대학원 육성 △순수불교학술상인 불연상(不然賞) 제정 및 故 이기영박사 추만이 중생속에 파고들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힌 정이사장은 "불교종합연수원 건립은 청소년 교육을 포함한 불교복지의 질적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건립할 뜻을 내비쳤다.

취임식에는 녹원(동국학원 이사장) 성타(조계종 포교원장) 도원(천태종 교육부장) 정대(용주사 前 주지) 도원(화계사 주지)스님 권기종(동국대) 문명대(동국대) 김종서(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교수 김신배씨(서울구도회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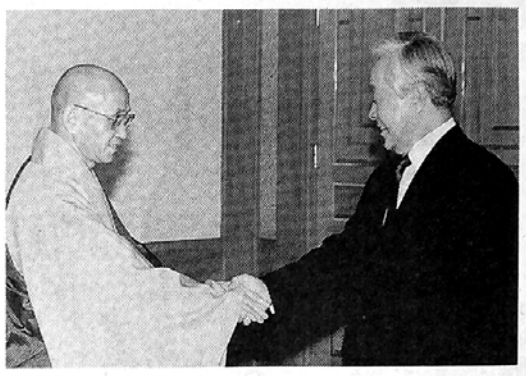
한명우 기자

게시판

모집 수화교실=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오는 2월 11일과 13일 점자·수화교실을 개강한다. 회비는 3만원. (02)720-4528

교양대학=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오는 2월 28일까지 교리반 주간, 야간 및 경전연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3월 9일. (051)866-7277

머리미용=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스님)은 3개월 과정의 머리미용 취미자격증반을 오는 2월 3일 개설한다. 수강료 8만원. (02)421-6077



월주스님 김대통령과 시국수습 논의

월주 조계종총무원장은 지난 20일 김영삼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 노동법 및 안기부법 변칙통과에 따른 시국수습안을 건의했다.

월주스님은 이날 김대통령에게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 11개 법안의 변칙통과가 시국혼란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고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지사 정법사회구현 기원법회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는 지난 18일 만덕전에서 정법사회 구현을 위한 기원법회 및 신년교례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녹원스님(직지사 주지)을 비롯 법타스님(불교대구방송 사장) 이의근 경북지사 김천시장 구미시장과 인근지역 각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 7백여명이 참석했다.



중흥사 불교중흥회관 개원식

북한산 중흥사(주지 도각)는 지난 22일 가회동 가회빌딩 2층에 포교원 불교중흥회관 개원식을 거행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진경스님(조계종 前총무원장) 일공스님(원융종 총무원장) 남정스님(총화종 총무원장) 대호스님(대한법화종 총무원장) 보인스님(진언종 前 총무원장) 등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파라미타 청소년협 분회장 연수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스님)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제1차 분회장연수를 개최했다.

총재 성타스님, 사무총장 성수스님을 비롯 전국의 각 분회장 1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수회에서는 법회의 운영과 지도방법, 파라미타 활동방향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외국인 노동자 신년회·문화한마당

네팔불자모임(회장 인드라구릉)과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설조 안동일)이 공동으로 개최한 외국인노동자 신년법회 및 문화한마당이 지난 19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법타(은해사 주지) 정덕(자비의전화 회장)스님을 비롯 네팔 태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 1천여명이 참석했다.

'97년을 뛴다

불자 택시기사 임 재 욱씨



불자택시기사가 임재욱씨(44·대구시 남구 대명 9동). 달리는 법당인 그의 택시안에는 독경테이프는 물론 자신이 직접 녹음한 판소리와 詩가 늘 함께 한다.

"불교공부를 하면서 나의 존재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서로 상의상존해 있는 이웃의 은혜를 갚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라고 말하는 임씨의 차안에는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자선모금함도 항상 비치돼 있다. 모금된 돈은 전액 전석복지재단에 전달,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척수장애인 등을 위해 쓰인다. 지난 94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동부장관표창까지 받았다. 현재 임씨는 전석복지재단 이사로 있다. 문인들의 모임 '뜨락' 동인인 그는 동인시집을 판매 수익금을 전액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납 탓하기 전에 나부터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사회고(社會苦)는 저절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임씨는 현재 바쁜생활중에도 영남불교대학에 나가 불교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불우이웃돕는 '거리의 포교사'

대구=이윤호 기자

'97학년도 조계사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개강 : 3월 10일 (입학식:3월8일)

(1)모집부문

학 과	학제	모집인원	비 고
불교학과	2년 4학기	주간·야간 각60명 통신○○명	과목별 수강도 가능

(2)입학자격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기초교리, 교양대학 수료자(고졸이하 학력소지자의 경우)

(3)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본 대학 소정양식)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기초교리 수료증 사본 1통(고졸이하의 경우)

(4)특전
조계종총무원 발행 포교사 자격증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졸업장 수여,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5)학과목 및 강사

학 년	1학년		2학년	
구 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과 목	종교입문	불전개설	대승불교	포교론
	불교문화	한국불교사	중국불교사	선사상
	원시불교	불교윤리	금강경	불교사회사상
특 강	학기중 2회			
강 사	현근스님, 상묵스님, 현각스님, 증석스님, 증호스님 권기종, 조용길, 정명호, 선진규, 정병삼, 박경준, 김상영, 김용표, 최종석, 김경집, 김진태, 김태영교수 (무순)			

※강사와 교과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강의일시 : 매주 월, 화, 수요일
주간/오후 2시~3시30분 야간/오후 7시~8시30분
조계사내 제1, 2강의실

(7)원서 접수 기간 : 1997년 1월 15일 ~2월28일

불기2541년 조계사 불교대학 부설

제4기 경전연구강원 연수생 모집

1)모집부분
경전연구 본과정 : 4학기(2년과정)
경전연구 단기과정 : 1년과정

(2)입학자격
불교대학(교양대학 포함)재학 및 수료자/기초교리 수료자

(3)전형 및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본 강원 소정양식)/사진2장(반명함판)/수계증 사본 또는 불교대학(교양대학)재학증명서나 졸업장(수료증) 사본 1통

(4)강의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3시

(5)등록
본과정 입학금:100,000원 수강료:100,000(매학기당)
통신과정 입학금:100,000 수강료:130,000(매학기당)
단기과정 수강료:130,000원(통신 160,000)

(6)제4기 경전 연구반
●연구경전 : 유마경(1년)
●강사 : 송찬우교수(중앙승가대교수)
●개강일시 3월15일(토)오후3시

조계사 문화강좌 안내 (매월초 개강)
불화그리기, 서예, 사군자(동양화), 판소리(남도민요), 수지침, 다도, 가요부르기, 꽃꽂이, 선체조, 한국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계사불교대학 교무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720-1390,6742 F.720-1391

원효학당

비전 21, 생활의 불교 인류의 미래

1997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모집안내 ♣

●응시자격/제한없음
●개강일자/3월 11일(화)
●모집과정/동장법사과정 ○○명
●원서교부·마감/2월28일(금)
●제출서류/입학원서1부 사진2매(3×4)
●전형·통보/서류전형·개별통보
●문의처/본학당 사무국 (TEL/3411-6167~8)

○각 과정별 법사 학위 수여!
○수강자의 희망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
○타 교육기관의 이수 경력·학점 인정!
○깨끗한 음질과 편리한 통신과정 운영!

♣ 특 전 ♣
대학(원)재학생 중 선발된 자는 장학혜택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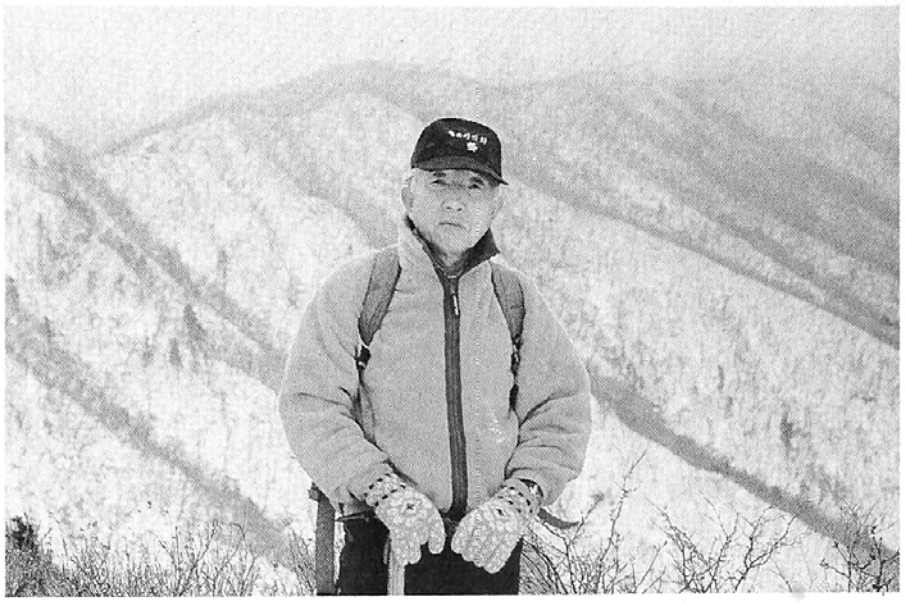
학장·정병조 박사

♣ 신규 개설 강좌 ♣

강 좌 명	교 수	일 시
승 만 경	정병조 박 사	매주화요일 10:30~12:00
중관철학		매주화요일 13:30~15:00
논어Ⅱ	진성규 박 사	매주목요일 13:30~15:00
중국불교 연 구	권기종 박 사	매주목요일 13:30~15:00
불교미술의 이 해	문명대 박 사	매주목요일 15:10~16:40

사 단 법 인 한국불교연구원 원 효 학 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3동 186-1 개포빌딩 6층
Tel 02)3411-6167~8/Fax 02)3411-6169

"
잡념 짊어지고 오르면
산은 빼앗듯 비워주고
비운채로 오르면
산은 무념을 채워주고
"



"어떤 산이든 나에겐 수행처"

산문밖의 禪

산악인 김대환 씨

"왜 산에 오릅니까." 산악인들이 흔히 받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김대환씨(69·한국산악회 부회장·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산은 곧 삶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주저하지 않는다.

"인간은 대우주속에 태어난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대우주는 무한한 공간과 시간속에 존재하는 영원한 실체지만 그 속에 태어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대우주라는 자연속에서 살아가는 운명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 한 평생을 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순간도 대우주의 자연과 절연해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산행할 때마다 절감합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산을 삶의 거울로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왔다. 그러기에 산은 때로는 신비스러운 존재로, 때로는 엄숙하게 외경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넉넉한 품을 내어준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은 그냥 산악이 아니다. 이를 그대로 금수강산(錦繡江山)이다. 비록 땅덩어리는 좁고 이렇다 할 자원은 없지만 우리의 강산은 너무나 아름답다. '인자(仁者)는 요산(樂山)하고 지자(智者)는 요수(樂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산과 같이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은 어질고 지혜롭기 그지없다. 김대환교수의 얼굴도 산의 넉넉한 품을 닮아있다.

"60여년 크고 작은 산행의 과정에서 삶의 고락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선정(禪定)을 느꼈다고 할까요. 산은 마치 포근한 어머니 품속같지요. 산행과 더불어 존재하는 내 인생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산을 떠나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슬산(1084m) 산록인 경북 현풍에서 태어난 김교수는 '산을 배워 멋있는 인생을 살자'는 서원을 어릴 때부터 세웠다. 이때부터 산은 그의 벗이 되었고 스승이 됐다. 산과 김대환은 불가분의 관계가 된 것이다.

국내의 산을 섭렵한 김교수는 국외의 산까지도 발을 내디뎠다. 네팔의 위마라야, 티베트의 히말라야, 킬리만자로의 최고봉 우호로피크, 실크로드의 천산, 북극의 설산 맥킨리 등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산을 가리지 않고 찾아나선 것이다.

"각 지역이나 국가마다 산은 있게 마련입니다. 비록 산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본성은 하나로 통합니다. 다만 오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산의 모습이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마음을 짊어지고 오르면 산은 금새 잡념들을 빼앗듯 비워주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줍니다. 또 아무 생각없이 오르면 그 속에 희망과 용기를 가득 채워줍니다."

김교수는 일단 산에 가면 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떨쳐버린다.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기 위해서다. 때론 나뭇가지를 잡고, 때론 암벽을 타는 아찔한 순간순간에 마음에 응어리진 잡념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비로소 정상을 맞이한다.

김교수는 칠순이 가까운 노구에도 불구하고 일단 산에 갔다오면 젊은사람 못지않는 활력이 넘친다. 우선 강의가 신명난다.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 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학〉〈민족의식〉〈그래도 우리에게 산이있기에〉 등 20여권을 어렵지 않게 집필했다. '산에 도전한다는 생각보다는 대자연인 산과 소자연인인 자신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자'라는 것에 대한 결과다.

'산을 다니다보면 생활의 철리가 알아진다'는 김교수는 "우리 인간이 자연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너무 많다"고 강조한다. 그것들을 무의식중에 흘려버리면 그만이지만, 자연환경을 깊이 관찰하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 종교, 전통, 역사 등을 살펴보고 생각하면서 산행을 하는 것이 곧 산악인의 올바른 마음가짐이고 인격이 되는 법이다.

일요일, 휴식이나 여가를 산과 더불어 지내지 않고 "아이구, 피곤하다" 하면서 낮잠이나 자고 공기탁한 다방에서나 대포집 목로에 앉아 소주잔을 들이키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런 비(非)등산가는 결코 산이 주는 그 무한한 고마움을 실감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김교수는 만나는 사람마다 "도심을 탈출해 산행하라"고 강조한다. 인생은 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질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도시를 떠나 집을 떠나 막상 산으로 나서면 세간의 모든 잡념들을 떨쳐버리고 잊을 수가 있다. 한마디로 산은 인간의 정신적인 귀의처이고 안식처역할을 톡톡히 해준다. 하지만 우매한 것이 중생이라 했던가. 산에 올라도 안 오른듯 계곡에 앉아도 안 앉은듯해 산을 천연의 모습으로 남겨야 하는데 인간은 산을 송두리째 갖고 오려하고 꼭 다녀간 티를 낸다.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무념무상으로 산에 오른다 해도 하산할 때의 인간은 이미 많은 것을 마음에 담고 오기 마련인 것을.

"대부분 등산객들은 산을 알려고 하지않고 그냥 즐기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얄팍한 향락의 생각으로 산에 오르면 산이 먼저 등을 돌리게 되지요."

3백만에 가까운 등산인 가운데 산의 철학과 인품을 갖춘 진정한 산악인이 1~2%만 있다해도 산악문화는 올바르게 정립되었을 것이다. 가끔 수많은 등산객들에 의해 어지럽혀지고 추잡해진 등산환경에 부딪칠 때 김교수는 산악인인 것이 부끄럽다.

고희(古稀)를 앞둔 김교수는 요즘도 시간만 나면 인근의 산을 찾지만 화두가 하나 더 늘었다. '산에서 꼭 만나게 되는 사찰에서 요즘 사람들이 삶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다.

산과 함께 호흡하고 평생을 살아온 '산사람' 김대환. 그에게 있어 산을 오르는 마음은 "구도의 길처럼 오로지 일편단심"이다.

김중근 기자

산행 60년… 세상사 떨치는 공부 아찔한 고비 넘어야 비로소 정상

모든게 허무하게 보입니다

문 마음공부를 하면서 한가지 느낀 것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비우는 그 순간에 환희심을 맛보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생명도 헛되게 느껴지고 일상생활도 덧없게 보이는데 그것 역시 마음의 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최봉헌·대구 수성구 만촌동〉

답 마음을 비웠다는 생각도 놓고 환희심이나 덧없다는 생각도 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이에 스승이 계시다면 점검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실은 그 덧없다는 생각도 내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이고 즐겁다는 생각도 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생각을 나온 자리에 되놓아라,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그 자리요 들질 않게 하는 것도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놓으세요. 확 바뀝니다. 그러나 환희심이다 덧없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 역시 집착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한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때는 종일 일을 하고도 두, 세시간 밖에 잠이 안올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때 그 사람이 내가 두세시간밖에 못잤는데 피곤해서 어쩌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정말로 육신이 피로해서 애를 먹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두세시간밖에 못자게 한 것도 그 자리의 일이요, 그런 걱정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다 놓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피로를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젯밤에 제대로 못자서 몸이 찌뿌드하다는 생각을 종일토록 합니다. 나중엔 아예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사서 고생이란 말입니다. 그러지말고 졸리면 자게될테지 하고 턱 내려놓으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환희심이다 덧없다 하는 생각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불법수행과 같나요

문 스님들께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불법공부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학문분야나 산업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그 값어치를 따지면 궁극에 가서는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정배·충남 아산시 실옥동〉

답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생각하는 값어치로 따져 같다 다르다가 아니라 일체 현상은 모두 실다운 상이 없으면서 쉴 사이없이 돌고 도니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체만유는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나고 드는데 거기에 어떤 것은 특별한 값어치가 있고 어떤 것은 하찮다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길 하더군요. 마음공부를 하다보니가 논문을 쓰는데 전보다 훨씬 더 잘 써지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지요. 주인공 자리, 이름없는 주인공 자리에서 전체가 다 나오고 거기로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학문을 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참선입니다. 참선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된다고 전에도 말했지요. 열심히 정진해서 내가 끌지 않는 차원에 이르게되면 들고 나는게 다 거기, 주인공 자리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지 따로 참선이 있어야 할 까닭이 없게 되지요. 그렇지만 거기 내가 달라붙어서 좋으니 나쁘니 하게 되면 물어보신 그 둘은 다르게 되지요.

가령 이쪽이다 저쪽이다 할 때에 그 이쪽 저쪽이 다 상대적인 기준인데다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다시말해 동쪽과 서쪽에 마주 선 사람이 그 중간을 바라볼 때에 동쪽에 선 사람에게 중간은 서쪽이 되고 동쪽에 선 사람에게 중간은 서쪽이 되고 서쪽에 선 사람에게는 중간이 동쪽이 됩니다. 그걸 다르냐 같으냐 하시겠습니까? 마음자리에 서면 다르지 않지만 말입니다.

'나아닌 도리'를 지켜가려면…

문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아닌 도리를 알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도리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 경지에 머무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머무르지 않으려 하지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것도 생각인데 그때는 어떻게 한 발을 내딛습니까?

〈이선자·부천시 원미구 상동〉

답 지켜나가기는 무얼 지켜나갑니까? 밥 잘먹고 소화 잘시키고 똥 잘누고 잠 잘 자면 그냥 여여하지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 마음공부하는 데는 닥치는대로 놓고가라 했는데 내 경지가 어떻다느니 이만하면 됐다느니 아직 부족하다느니 하는 군더더기가 거기 왜 붙습니까? 조사님들 말씀에 부처가 오면 부처를 베이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쳐죽이라 했다는 말도 못들으셨습니까? 이것 저것 따질것 없이 닥치는대로 놓으세요.

공부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한 소식 얻었다해서 거기에 주저앉거나 이만하면 되었지 하고 고개를 쳐드는 분들이 간혹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낳기만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질 않습니까? 애를 낳았으면 먹이고 길러야 하지요. 성인이 되도록 말입니다. 닥치는대로 놓고가라는 것은 갓난애를 낳아 기르는 소식입니다.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님들께서 항상 지니면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제작 하였습니다

■ 기본판·국반판 256p·고급비닐커버 ▶ 정가 2,000원
■ 증보판·국반판 352p·고급비닐커버 ▶ 정가 2,500원
※ 법보시 하실 사암 환영합니다

우리말 지장경
석 일 화 편저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5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출판사 ☎(02)723-4306~7 FAX 738-8682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직 원 모 집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에 복지관을 신축하여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펴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보육사업과 노인복지사업에 헌신할 가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1) 인덕어린이집 종사자 모집

모집부문	인원	응 시 자 격	근 무 지
시설장	○명	시설장자격자	진관외동 산38-48
교 사	○명	유치원정교사2급자격증소지자	이하상동
취사부	○명		

2)인덕노인복지회관 종사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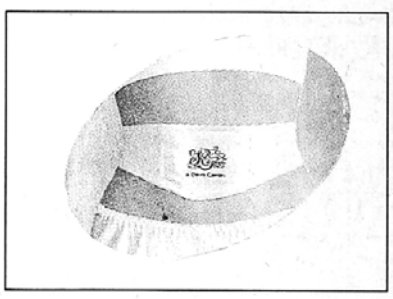
모집부문	인원	응 시 자 격	근 무 지
시 설 장	○명		진관외동 산38-48
사회복지사	○명	해당자격증 소지자	
촉탁의사	○명	해당자격증 소지자	
간호조무사	○명	해당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명	해당자격증소지자	
취 사 부	○명		
관 리 인	○명		
사 무 원	○명	사무처리능력소지자	

2. 제출서류
1)자필이력서 1통 (전화연락처 응시직종을 우측상단기재요) 2)자기소개서 (1000자이내) 3)자격증사본 1통 (자격증소지자)
4)주민등록등본 1통 5)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에 한함)
3. 전형방법
1)1차 서류전형 2)2차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4. 제출기간 및 접수처
1)제출기간 :1997년 2월 5일 까지
2)접수처 : 삼천사 사무실(은평구 진관외동 산 127-1)
5.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함
3)문의처 삼천사 02)353-3004 02)359-7766
법인사무국 02)385-8181(대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대한불교 조계종 삼천사 주지 서성운(병진)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신라표원스님 '화엄경문의요결문답'

日서 필사본 발견

황규찬씨 자료 공개… 화엄학 日영향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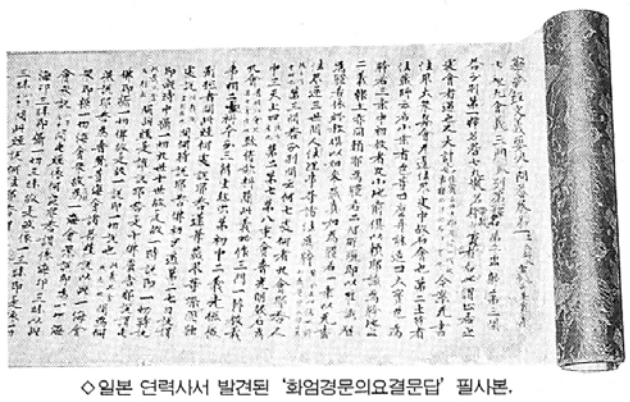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아 있지 않은 신라시대 고승 표원(表員)스님이 찬술한 〈화엄경문의요결문답(華嚴經文義要決問答)〉(이하〈문답〉)의 가장 원본에 가까운 필사본이 발견됐다. 또 지금까지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던 〈화엄요의문답〉과 〈화엄경문의요결문답〉은 같은 것이며, 표원스님(생몰연대 미상)과 표훈스님(의상스님 제자·생몰연대 미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서로 다른 인물임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신라 표원의 화엄요의문답 연구'로 동국대 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황규찬씨가 지난해 일본 히에산 연력사(延曆寺)에서 입수한 〈문답〉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현재까지 〈문답〉의 필사본으로 알려진 것은 일본에 현존하는 동대사, 경도대학, 용곡대학본이 전부. 이번에 발견된 연력사본은 일본 국보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그동안 일본에서조차도 전혀 연구되지 않은 것이며, 필사본 말미에 '연력(延曆)18년(797년) 행복(行福)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기록돼 있어 최소한 1천2백년전의 것으로 평가된다.

또 〈문답〉은 현재 전하는 이들 3종의 현존본이 상당히 많은 이자(異字), 탈자(脫字), 오자(誤字)가 있는데 비해 거의 완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5권중 1권에 해당하며 상·하 2권으로 돼 있는 두루마리 형태의 〈문답〉은 외제(外題)가 '화엄요의문답'으로 돼 있으나 내제(內題)는 '화엄경문의요결문답'으로 돼 있어 '화엄요의문답'과 '화엄경문의요결문답'이 같은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일본 연력사서 발견된 '화엄경문의요결문답' 필사본.

797년 제작… '화엄요의 문답' 같은책
"표훈스님과 동일 인물 아니다" 주장

또 〈문답〉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표원스님은 제1권에서 '칠처구회(七處九會)'를 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80화엄을 연구했으며, 80화엄의 번역이 완성된 해가 699년이고 〈문답〉의 필사연대가 797년임을 감안할 때 표원스님은 대략 8세기 중엽에 활동했으며, 연력사 〈문답〉도 이 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황씨는 설명했다.

더욱이 〈문답〉은 거의 80%이상을 중국 승려의 설을 인용하고 있으며, 의상의 설은 단 3회 인용에 불과하고, 그중 1회는 의상의 오류를 지적·비판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의상의 제자인 표훈(表訓)과 표원은 서로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된 '표원과 표훈의 동일인물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연력사 국보관에서 직접 이 자료를 조사하고 돌아온 김지견박사(정신문화연구원)도 "〈문답〉은 80화엄을 정리한 것중 가장 방대하고 내용 또한 충실하다"며 "그동안 잘못알려졌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목정배교수(동국대 불교학)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표원스님의 행적이나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화엄경문의요결문답'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큰 수확"이라며 "표원의 화엄학이 일찍이 일본에 영향을 끼쳤던 사실을 말해주는 획기적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황규찬씨는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역된 '화엄경문의요결문답'은 경도대학본을 수록한 속장경을 저본으로 한 것이어서 이번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보충이 이뤄져야 한다"며 연력사 〈문답〉 발견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유일한 고려예불도… "무늬 섬세"

구도·장식 14세기 작품유사… 과학적 보존 절실

봉정사 후불벽화 특징

이번에 발견된 봉정사 극락전 후불벽화를 고려불화로 보는데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문명대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재연구소)에 의하면 구도상 나타난 특징으로는 화면 상단 중앙에 석가삼존상을 배치하고 그 주위로 제석과 범천, 아난과 가섭 등 10대 제자, 보살들이 주위와 삼존 아래쪽으로 배치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구도는 14세기 전반기 의 관경변상도와 미륵하생경변상도의 본존불과 협시들의 배치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특히 1350년 미륵하생경변상도를 상한(上限)으로, 1465년 조선초기 관경변상도의 구도와 비교되므로 14세기 후반기에서 늦으면 1450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불상군의 형태를 볼 때 머리의 얇은 육계와 증앙계주, 둥근 얼굴과 단아한 형태가 14세기 불상들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또 둥근광배의 붉은 선과 녹색선 안의 녹색과 흰색, 붉은 가사와 녹색 상의에 그려진 섬세한 꽃무늬색들은 물론 얼굴과 살색을 금니로 칠한 것이 1350년 미륵변상도를 상한으로 1465년 관경변상도를 하한으로 하는 고려불화의 특징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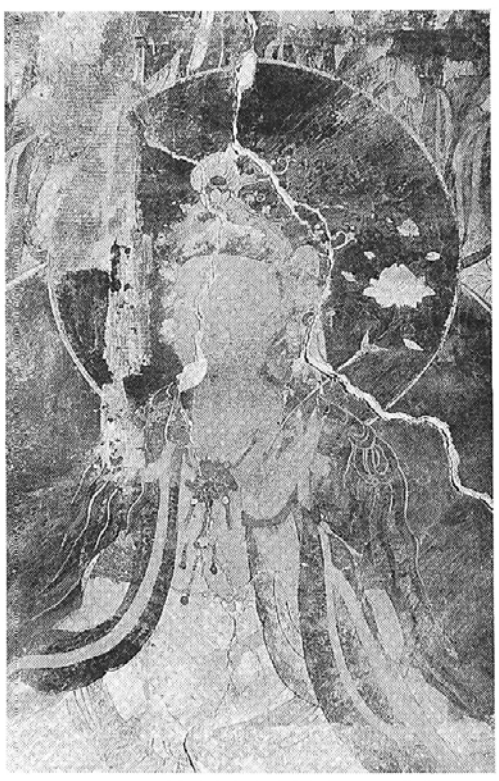
또 이 벽화 불상에 그려진 왼쪽가슴 상의(上衣)의 금구장식(金具裝飾), 왼쪽 팔꿈치의 Ω형주름, 대의에 세필로 그려진 세련되고 유려한 둥근 꽃무늬와 옷깃 흰바탕색에 그려진 보상당초무늬 등이 1309년 아미타삼존도 등 14세기 전반기 불화들과 흡사하다는 분석이다. 8각대좌의 형태나 무늬들도 1465년 관경변상도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문교수는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전하는 고려 벽화로는 경북 영풍군 부석면에 소재한 1377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부석사조사당벽화(국보 제46호)와 모사도(模寫圖)의 일부만이 전하는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벽화 두 점뿐.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벽화는 예불도(영산회상도)라는 점에서 위 두 점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 가치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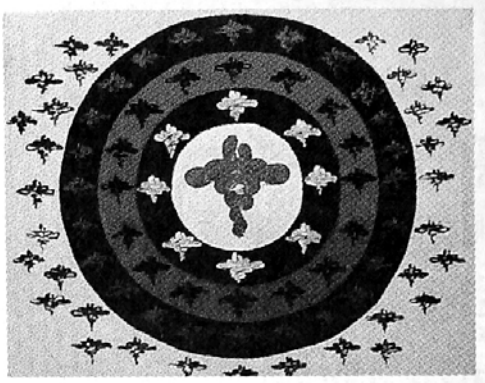
또 국내 유일의 예불도인 조선전기 최고(最古)의 벽화로 꼽히는 1476년작(作) 전남 강진 무위사 아미타후불벽화보다도 시기적으로도 앞설 뿐 아니라 한층 나은 고색을 자랑하고 있어 국보로 지정, 과학적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현재 국내에 전하는 고려불화는 아미타삼존도(국보 제218호)등 호암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3점과 호림미술관 소장 지장시왕도(보물 제1048호), 지난해 발굴된 수월관음도 등모두 7점이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은 이번에 발견된 고려벽화에 대한 조사 및 보존처리를 위해 조만간 현지에 내려가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우〉



◇새로 발견된 봉정사 후불벽화의 문수보살상. 문수·보현보살과 사천왕, 10대제자들이 석가여래부처님을 중심으로 배치돼 있는 전형적인 영산회상도 구도이다.



◇현정作

法數로 배우는 불교 ③

일단 일체단

고기를 잡을때 쓰는 그물은 씨줄과 날줄, 즉 세로줄과 가로줄로 짜여져 수많은 코를 이루고 있다. 만약 얼키설키 이루어진 이러한 그물에 하나의 코라도 끊어진다면 그 그물은 곧 못쓰게 되고 말 것이다. 끊어진 하나의 코는 다른 코들을 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 급기야는 그물 전체를 망가뜨려 놓는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은 비단 그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한 가정에도 한 집단에도 한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전체가 불행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이처럼 그물과 같이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가 끊어진다는 도리를 불교에서는 일단 일체단(一斷 一切斷)이라고 한다. 즉 일단일체단의 뜻은 '한 번뇌를 끊으면 온갖 번뇌가 끊어진다'라고 이해해야 옳은 것이 된다.

'아상' 버리면 온갖번뇌 사라져

마음 살피는 공부 인연속박 벗는 지름길

알다시피 불교는 번뇌를 끊어 해탈을 이루는 종교다. 번뇌란 중생들 마음속에서 일고 꺼지는 모든 생각들을 가리킨다. 보이고 들리는 대상세계는 물론 부모형제, 남편, 처자의 일체 인연사가 번뇌가 되어 마음이 장악되고 희·비·애·락의 굴레속에 빠져 나고 죽음을 거듭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보면 번뇌를 끊는 일은 불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급선무라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의 번뇌를 끊어 일체의 번뇌마저 끊는 것인가? 먼저 여기서 말하라는 하나의 번뇌란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들 가운데 붙어있는 '나'라는 자아의식(自我意識)을 말한다.

그리고 일체번뇌란 이러한 '나'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갖가지 그릇된 집착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두목격인 '나'라는 의식만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한량없는 번뇌는 스스로 사라지게 된다. 바로 '나'가 마음속에서 비었다는 이치를 확실히 알것 같으면 처자권속은 물론 산다 죽는다, 과거다 미래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들이 모두 흩어져 일체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일단일체단이라는 말씀가운데 일단(一斷)이란 바로 생각생각마다에 달라붙어 있는 '나'를 끊는다는 말이며, 일체단(一切斷)이란 '나'라는 의식에서 파생된 온갖 집착들을 끊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나'라는 번뇌가 곧 일체번뇌인 셈이되고 일체번뇌가 곧 '나'라는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곧 '나라는 마음'을 끊는다는 것이 된다. '나라는 마음'을 끊으려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 모든 분별을 놓치지 말고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 이것이 곧 참선인 것이다. 즉 마음을 살피는 공부가 곧 참선이다.

참선을 통해서 자신을 깨달으려는 행을 짓는 사람이다. 마음이 대상을 좇으면 범부중생의 길에 드는 것이고, 마음이 내면을 향해 집중되어 있으면 성현의 길에 드는 것이라 했다. 하나의 번뇌를 끊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활과 마음이 함께 돌아가는 것이라면 살피는 공부도 함께 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불교전문 지도자(유발승려)교육생모집

1. 설립이념

본교육원에서는 현실에 맞는 실천불교, 체험불교, 생활불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선양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지도자(유발승려)교육과정을 개설하오니 불교에 대한 원력을 가지고 전문 종교인으로서 가치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교육기간 : 1년
교육과정 (※ 자세한 교육과정 내용은 설명회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불교학	종교학	포교학	불교의식(집전)	복지학	상담심리학	명리학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지도자과정 30명 일반과정 30명	불자 고등학교 졸업 30세 이상의 남·녀	입학원서 1통 본원 소정 양식 1통	원서교부 97년1월10일 ~ 2월 28일 접수 3월1일 ~ 3월 10일(전형료 15000원)	면접 및 서류전형 공·사 기업체 명예퇴직자 우선전형

4. 특전

▶ 본원 졸업(전문지도자 과정)수계 후 유발승려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본원이 소유한 사찰 및 포교원 원장에 발령 임명함.
▶ 본원졸업(일반과정)수계후 법사자격 부여 본원 포교사 임명
▶ 성적우수자에 한하여 본원과 자매 결연한 해외 종교 기관에 특별 연수

※ 교육과정 설명회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 본원
대표전화 : (02) 423-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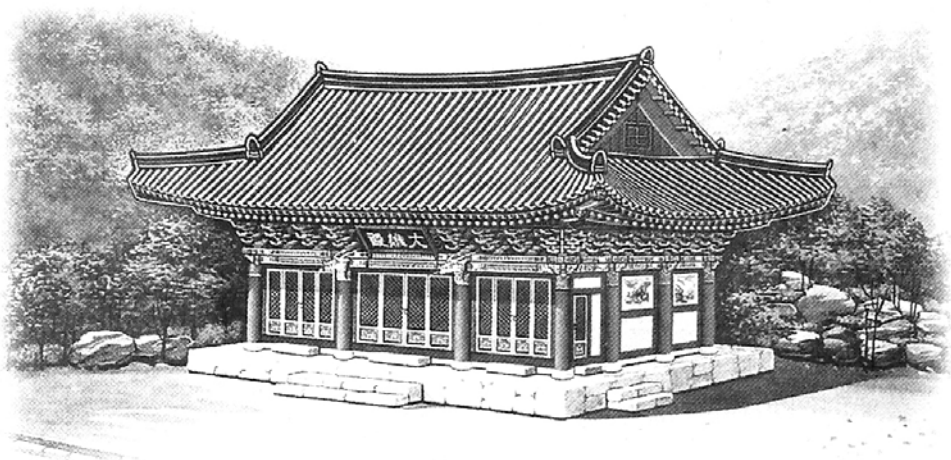
우리불교 마음의 절

부설 : 불교전문 지도자 교육원
불자가정 부처님 모시기 운동본부

장엄불사 조감도

스님의 생각을 현실로 표현해 드립니다.

(주)두풍산업에서는 확실한 조감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장엄불사안내 : ●목조 사찰건축, 콘크리트법당 및 요사채 ●대불, 옥불, 조각, 닫집, 탁자, 문짝

기능직 중견 사원모집
자격 : 10년이상 사찰 및 고건축 분야에서 종사하신, 정직하고 성실한분을 (주)두풍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책임은 확실히 지고 약속은 꼭 지키는 기업입니다.
株式會社 斗豊産業 doo poong 서울 중랑구 망우동 486-8 (두풍 B/D)
대표 02) 432-7777
전화 02) 439-3900

"절 찾아온 대중 돌아갈땐 佛心을"

관광사찰은 문화포교 도량

'97 문화유산의 해

조계종은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전체 문화재의 70%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유산을 바로 알고 쉽게 알린다는 취지로 문화재를 간직한 '관광사찰'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그 1차 사업으로 사찰안내 전단을 배포하고 전문기의 안내활동도 권장할 계획이다. 사찰안내 전단은 문화재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불교상식을 담아 포교효과도 기대하게 한다. 관광사찰 포교에 대한 종단차원의 포교지침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관광사찰을 포교전진 기지로 삼는 적극적인 포교 활성화 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관광사찰'은 포교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사진은 해인사로 수학여행 온 어린이들.

명산에 명찰(名山 名刹). 심산유곡 풍수가 수려하고 역사가 깊은 곳엔 반드시 사찰이 있다. 게다가 국보 보물급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관광사찰'은 훌륭한 볼거리이면서 정신휴식처이고 그 자체로 역사와 문화의 산 교육장이 된다.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아 레저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 현대인의 생활패턴이 삶의 질을 찾고 있는 현실은 향락철이 아니더라도 사시사철 명승지에는 인파로 붐빈다. 특히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여서 문화유적지의 관광객 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59개 관광사찰(조계종 57개 태고종 2개)에는 연간 약 3천만명(내무부 통계 약 3천1만명)(**도표 참조**)의 입장객이 몰려들고 있다. 이 수치는 자연스럽게 절을 찾는 인구이며 불교는 앉아서 그 엄청난 인파를 맞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불교는 이들 3천만명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새로운 포교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이 수치에는 불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막연한 불심을 구체화 하고 '무심(無心)'한 대중에게는 불교를 심어주는 포교전략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교즙은 아이들 교과공부를 위해서도 주말이나 휴가때는 대부분 유적지와 고찰에 갑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찰에 가서는 유물 유산에 대해서조차 안내판이 없으니 절이 지닌 정신적 종교적 의미는 전혀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불자임에도 문화재사찰의 방치된 포교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크다는 박종선씨(36세, 회사원). 비불자는 더하다는 것. 사찰에서의 예절은 기대할 수도 없고 그저 유물에 대해 안내문조차 없는 박제된 전시품 감상하듯 '쓱' 보고간다는 것이다.

물론 사찰의 관광지화에 대해 신성해야 할 사찰이 오염돼가고, 수행분위기를 해치기도 하며, 불교가 상품화 되어가고 있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또 관광지화 과정에서 사찰이 갖는 고유한 사상과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관광수입을 올리려는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행정정책으로 편중돼왔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시대에 접어든 현실은 가장 한국적인 민족의 얼과 정신을 간직한 문화재사찰에 대한 관광단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관광사찰을 포교의 환경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관광사찰 스스로 예산의 상당부분을 포교비로 지출해야 하며, 종단차원의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관광사찰의 관람료는 조계종의 경우 총수입의 30%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총무원과 공동예치하고, 12%는 종단분담금으로 총무원에 내며, 5%는 중앙승가대 이전불사를 위해 2001년까지 교육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나머지 53%정도를 사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혁신안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본사급 등 주요사찰의 상임포교사제이다. 현재 관광사찰의 대부분이 포교에 대해 전담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종단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제도적으로 포교사로 임명, 상주케해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포교 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도 개별 사찰에서 뿐만 아니라 종단차원에서 집중적이고 꾸준히 제시하며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 포교용 인쇄물을 배포하는 곳도 찾기 힘들다. 나아가 문화유적을 활용한 책자 엽서 등 사찰문화상품도 개발도 절실하다.

"사찰 경내의 안내게시판도 현재처럼 문화재에 대한 이해위주에 머물것이 아니라 그 문화재가 갖는 종교적 의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신행답사를 이끌고 있는 김현준씨(불교신행연구원 원장)의 설명이다. 사찰문화유산 기행행사를 벌였던 김희균씨(월간 대중불교 주간)는 "도량 곳곳에 사찰 참배요령이나 교리를 담은 별도의 게시판을 도량과 어울어지게 제작해 설치하는것도 좋겠고, 단 몇시간일지라도 참선할 수 있는 관람객을 위한 참선방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당한 공간에 비디오시설을 갖춰 사찰안내 유물설명등이 이뤄지는 시청각포교도 바람직하다.

문화유산의 해를 기해 관광사찰 포교는 해당 사찰뿐만 아니라 종단차원의 집중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이 수립돼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관광사찰은 무망에 든 포교의 황금어장이기 때문이다.

위영란 기자

전국 58곳 한해 3천만명 '구경 발길'

상임포교사제 급선무 … 안내책·문화상품 보급도

〈지역별 관광사찰 연간 입장객 수〉 (96년 내무부 통계자료)

소재지	사찰	입장객 수	비 고
부산	범어사	336,174	금정산
대구	동화사	593,931	팔공산
대구	파계사	91,554	팔공산
달성	용연사	39,206	
평창	월정사	672,083	오대산국립공원
양양	낙산사	1,308,764	
속초	신흥사	2,892,444	설악산국립공원
원주	구룡사	332,935	치악산국립공원
춘천	청평사	131,809	오봉산
강화	전등사	604,581	마니산
여주	신륵사	340,141	
양평	용문사	543,381	용문산
화성	용주사	45,175	
동두천	자재암		소요산
보은	법주사	1,441,760	속리산국립공원
공주	갑 사	408,070	계룡산국립공원
공주	동학사	1,055,747	계룡산국립공원
공주	마곡사	197,284	계룡산국립공원
부여	고란사	762,421	
예산	수덕사	214,851	덕숭산
논산	관촉사	174,876	
부여	무량사	16,773	
공주	신원사	42,059	계룡산
김제	금산사	421,971	모악산
부안	내소사	236,802	변산반도국립공원
완주	송광사	34,138	
고창	선운사	425,095	선운산도립공원
남원	실상사	55,869	지리산국립공원
정읍	내장사	964,880	내장산국립공원
무주	백련사	964,869	덕유산국립공원
진안	마이산 탑사	624,481	마이산도립공원
영암	도갑사	59,514	월출산국립공원
여천	흥국사	37,581	
순천	송광사	419,005	조계산
순천	선암사	178,234	조계산
구례	화엄사	721,897	지리산국립공원
구례	천은사	697,506	지리산국립공원
구례	연곡사	128,512	지리산국립공원
해남	대흥사	321,100	두륜산
장성	백양사	500,718	내장산국립공원
영주	부석사	218,472	소백산국립공원
청송	대전사	501,404	주왕산국립공원
영주	희방사	182,496	소백산국립공원
영천	은해사	138,444	팔공산
울진	불영사	107,228	천축산
경주	불국사	2,424,910	
경주	석굴암	1,725,788	토함산
경주	분황사	244,066	
경주	기림사	292,773	
포항	보경사	362,694	내연산
청도	운문사	255,918	가지산
김천	직지사	563,995	황악산
울주	석남사	216,462	가지산
밀양	표충사	428,192	천황산
양산	통도사	991,511	영축산
양산	내원사	178,810	영축산
하동	쌍계사	339,451	지리산국립공원
합천	해인사	832,439	가야산국립공원
고성	옥천사	131,140	
총계	59개	30,010,938	26,500,000 (94년 집계)

나의 수행일기

이재순 〈건국대교수·기계공학〉 (下)



지금으로부터 7~8 년전 홍수 때문에 하안거 해제때 3박4일간의 정진기일을 늦추어 7월에 한다는 소식을 듣고 태안사에 전화를 걸어 법회 참가 허락을 받고 난생처음 남원땅을 밟았다. 절에 도착해 점심공양을 하고 청화 큰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토굴로 찾아갔다. 상단에 앉으셨던 큰스님이 밑으로 내려오시더니 내 손을 잡으면서 도반이라 부르며 환대를 하셔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그때 청화스님의 은사 스님이 지었다는 책 한권을 선물 받았는데 전부 숫자였다. 지구의 직경이 얼마고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하는 수개념사실이 많았는데 현대 물리지식과의 수치 차이는 있었지만 놀라운 일이었다. 선정에 들어가서 본 수치라는 것이었다. 오후부터 대청 마루에 모기장을 치고 그안에서 참선했다.

내가 지정받은 자리는 하필 둘째 줄 중앙에 청화 큰스님 바로 뒤였다. 숨소리 조차 조심스러웠고 반가부좌한 다리가 저려서 다리를 바꾸려고 하는 조그만한 소리도 조심스러웠다. 선이 아니라 고역중의 고역이었다. 저녁 공양후 다시 모기장 안에서 염불선을 하였다. 염불선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옆사람에게 물으니 아미타불을 화두로 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큰스님 감의와 계속되는 염불선으로 3박 4일이 지났다. 서울로 올라올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 같았다. 그때 청화스님께 큰 빛을 졌다고 느껴졌다. 선물받은 책때문이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나도 책을 한권 써야겠다고 결심하고 쓴 것이 〈연소 공학〉이다. 이 책이 시중 출판한 4번째 책이다. '연소공학'이라는 과목은 있는데, 학부학생때 쉬운 교재가 없어 고심끝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불교에 발을 들여놓은 뒤 불교 관계서적을 수백권 사 보았다. 내 전공에 버금갈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하였다.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이다. 무아, 업, 윤회사상 등 기본사상들도 여러책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혼란스럽다. '고(苦)'의 해결을 위해 '무아'를 주장했으면 업을 받고 윤회하는 주체는 무엇인지 딱 부러지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무명업장 녹이자" 날마다 다짐

불서 수백권 탐독 … 아직도 교리 쉽지않아



〈법화경〉 관세음보문품은 기독교신앙의 유일신과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와 같은 유일신 종교는 교리가 단순하여 교세가 쉽게 확장된 것 같다. 그래서 불교에도 관음신앙이 널리 퍼져 있는지도 모른다. 일반 절에서 무아니 업이니 윤회의 주체 등 교리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관세음보살의 구원을 더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윤회의 주체에 대해서 〈밀린다왕문경〉에 불꽃의 예와 강물의 흐름의 예를 들어 설명해 놓았지만 쉽게 이해될 수는 없는 것 같다.

얼마전에 친한 박거사와 같이 등산을 한 일이 있다. 그 분은 불교 입문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불교 교리공부도 깊이 한 분이 아니었다. 여러 가지를 물었다. 무명을 깨쳐서 허공같은 자기 본체를 우주의 허공과 한통속이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 하면 내가 관세음이 되고, 지장보살 하면 내가 지장보살이 되는 절대의 경지를 약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마조의 '할!' 황벽의 '방!'이나 '여시(如是)'라는 말도 절대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니 여시도 할 수 없이 여시이다. 따라서 이런식으로 여시 이외에 절대 위치를 가리키는 더 좋은 낱말이 있어도 말로는 알수 없는 일이고 또,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 해줘도 소용없고 본인이 직접 화두 참구하여 부지런히 닦으라고 말해주었다. 첨첩이 쌓인 무명업장이 다소나마 녹아내려 밝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끔 된 것이 다 부처님 은혜라 생각한다. 더욱 부지런히 정진하여야 겠다는 다짐을 날마다 해본다.

'불교는 없는 진리를 새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실제 있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니 이 교리가 명쾌하게 이해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또 '깨치는 것은 어렵겠지만 왜 이치로는 쉽게 설명이 왜 될 수 없는 것일까' 곰곰히 생각해 본다.

1997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 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東邦佛教大學

佛教學科 · 梵唄科 · 佛教美術科

(우)136-012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전화 : 763-0229, 763-8536

1. 모집내용

학 과	교 육 내 용	인 원	비 고
불교학과	불교교리 · 경전 및 포교과목을 교육	○○명	2년제
범 패 과	전통불교의식인 상주권공을 교육	○○명	"
불교미술과	전통회화 및 불교미술 교과를 교육	○○명	"

2. 응시자격(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불교 강원 사교과 이상 수료자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 필기시험(불교상식, 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및 면접 (공통)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1월20일~2월21일
(평일은 10:00~17:00까지, 토요일은 14: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5. 전형일자 : 1997년 2월 23일(日) 10:00~17:00

6.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 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4)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7) 반명함판 사진 6매
(8) 전형료 : 30,000원

7. 참고사항
(1) 본 대학 이수자엔 태고종단의 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함.
(2) 강좌는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개설함.
(단 법패과 전공과목은 야간에 개설할 수 있음)
(3) 기숙사 운영(지방 학생은 문의 바람)

편입생(불교학과 통신과정 포함) 모집 요강

기존의 동방불교대학은 폐쇄이므로 2학년 내지 3학년의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1. 응시자격
(1)본 대학 2년 수료자 (2) 강원 대교과 수료자
(3) 정규대학 졸업자(불교미술과는 미술대학 졸업자) (4)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2. 참 고
(1) 응시자의 수학 정력에 따라 2학년 또는 3학년에 편입토록 함.
(2) 통신생은 월 1회(1박2일 또는 2박3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3) 4년제 이수자에겐 중앙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태고종단 승려에겐 중덕법계를 품수케 함.

■ 원서교부 및 접수처
(1) 본 대학 교학처 (☎763-0229, 8536)
(2) 태고종 총무원 (☎745-2030~2)
(3) 태고종단 각 교구 종무원
(4) 경서원(조계사앞 ☎733-3345)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㉙

寒山大士頌云
한산대사송운
高高山頂上 四顧極無邊
고고산정상 사고극무변
靜坐無人識 孤月照寒泉
정좌무인식 고월조한천
泉中且無月 月是在靑天
천중차무월 월시재청천
吟此一曲歌 歌中不是禪
음차일곡가 가중부시선

한산대사가 읊기를
높디 높은 산 봉우리에서 사방 둘러보니 끝간데 없어라
홀로 앉음에 아는 이 없고 외론 달 둥두렷이 한천에 비치네
샘 가운데 원래 달이 없거니 달은 절로 청천에 걸렸어라
한가락 노래를 불러보나니 노래가락 이대로 선이 아닌가

首二句 就是說獨露眞常 不屬一切
수이구 취시설독로진상 불속일체
盡大地光皎皎地 無絲毫障碍得
진대지광교교지 무사호장애
次四句 是說眞如妙體 凡夫固不能識
차사구 시설진여묘체 범부고불능식
三世諸佛也找不到我的處所 故曰無人識
삼세제불야조부도아적처소 고왈무인식

也是扯喝藤 打開岔,
야시차갈등 타한차
凡有言說 都無實義
범유언설 도무실의
古德接人 非棒則喝 那有這樣羅索
고덕접인 비방칙할 나유저양나색
不過今比昔比 不得不强作標月之指
불과금비석비 부득불강작표월지지
諸位同參呀 究竟指是誰月是誰 參
제위동참아 구경지시수월시수 참

이제 나는 한 커다란 언덕에 대해 설했노라.
그러나 이것은 넝쿨을 자르고 갈림길을 내는 것이다.
무릇 모든 언설엔 실다운 뜻이 없다.
옛 스님들이 사람들을 제접할때 방망이가 아니면 할을 했으니 어찌 나처럼 너절한 모양으로 늘어 놓고자 했겠는가.
부득이 해서 억지로나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짓지 않을 수 없음이라.
그대들은 이 뜻을 아는가.
구경에 손가락은 누구며 달은 누구이겠는가.
참구하라

〈繫語〉 心卽是佛 佛卽是覺
경어 심즉시불 불즉시각

"손가락 달로 알까 염려하여 일깨우니 손가락은 누구며 달은 누구겠는가"

孤月照寒泉三句 是他老人家方便 譬如
고월조한천삼구 시타노인가방편 비여
這箇境界
저개경계
最後兩句 怕人認指作月
최후양구 파인인지작월
故特別提醒我們 凡此言說 都不是禪呀
고특별제성아문 범차언설 도부시선아

첫 두 구는 홀로 드러나 참으로 항상하여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여
온 대지가 밝아서 터럭만큼의 장애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다음 네구는 진여묘체를 설한 것이니 범부는 애당초 알 수 없고
삼세제불도 나의 처소에 이르지 못한 까닭에 아는 이 없다 한 것이다.
외론 달 한천에 비친다는 삼구는 한 산노인의 방편이니 그 나름의 경계를 비유한 것이다.
최후의 두구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달로 알까 염려하여 특별히 우리들을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이말 모두가 다 선이 아니겠는가.

就是我方才說了一大堆
취시아방재설료일대퇴
此一覺性 生佛平等 無有差別
차일각성 생불평등 무유차별
空寂而了無一物 不受一法無可修證
공적이료무일물 불수일법무가수증
靈明而具足萬德 妙用恒沙 不假修證
영명이구족만덕 묘용항사 불가수증
只因衆生迷淪生死 經歷長劫 貪嗔癡愛
지인중생미륜생사 경력장겁 탐진치애
妄想執着 染污已深 不得已而說修證
망상집착 염오이심 부득이이설수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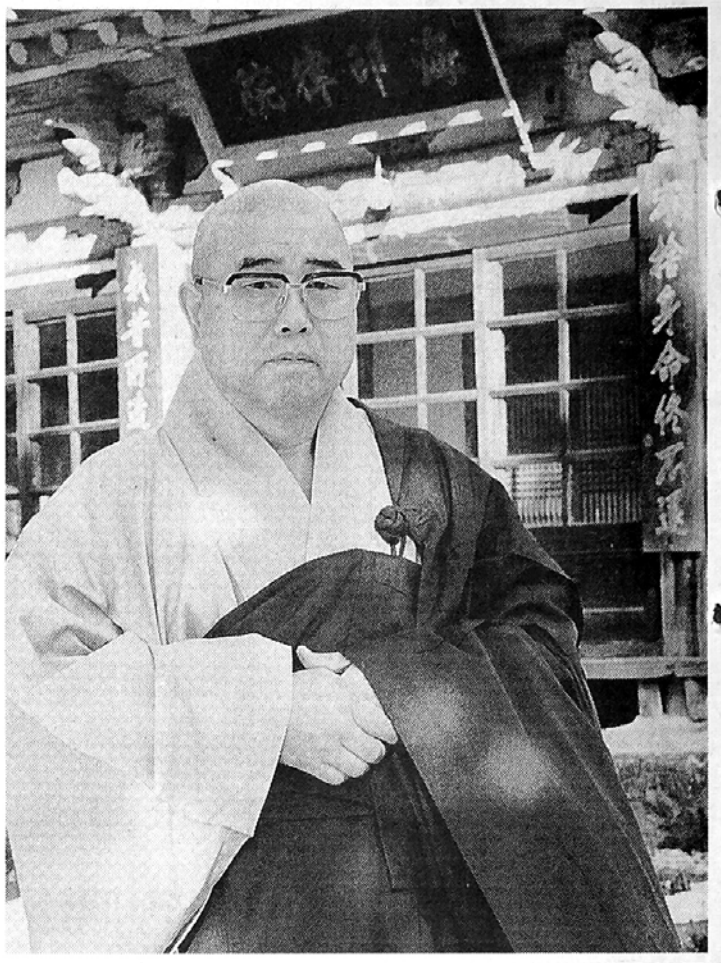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는 곧 깨달음이다.
이 깨닫는 성품은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고요하되 한 물건도 아니요 한 법도 받지 아니하니 수행할 수도 증득할 수도 없다.
신령스레 밝아 만덕이 구족하고 그 묘용은 항하의 모래알같이 많으나 수행과 증득을 빌리지 아니한다.
다만 중생이 생사에 미혹하고 빠져서 억겁토록 탐욕 진에 우치 애착 같은 망상에 집착하여 깊이 더럽혀 졌으니 부득이 수행에 대해 말하고 증득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생각의 뿌리 잘 다스리면

고봉스님 〈해인사 선덕〉



약력
- 1931년 충주 生
- 18세때 해인사 입산
- 영월스님을 은사로 득도
- 인곡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해인사 선원장 역임
- 조계종 교무부장 · 중앙종회의원 역임
- 현재 해인사 극락전에 주석

내가 태어난 곳은 충주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는 벽지인데 어릴 때 스님구경이라고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웃에 사는 친구의 누님이 해인사로 출가를 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불교얘기랑 해인사얘기를 많이 듣게 됐지요. 해인사에는 도닦는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도인들은 한결같이 말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딱 소리만 나면 먹을 것이 들어오고 또 딱 소리만 나면 먹을 것이 나간다고 해서 어린 마음에 신기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또 부처님일대기랑 6조 혜능스님 얘기도 들려줬어요. 그게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소에도 막연하게 나마 도 같은걸 한 번 닦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친구의 말이 도화선이 되었지요. 자나깨나 해인사가 무릉도원처럼 다가왔습니다. 해인사는 어린 소년의 꿈이요, 이상향이 돼 버렸어요. 부모님한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출가한다고 하니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3년만 공부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네가 도를 깨치면 이세상에 도 못깨칠 사람 없겠다며 허락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는수 없이 말도 않고 집을 나와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그때가 내 나이 18세되던 해였습니다.

대구를 거쳐 고령에 도착한 다음 해인사까지 걸어갔습니다.

마을사람들에게 도닦으러 해인사에 간다고 하니 주지스님을 찾으라고 해요. 그런데 마을사람들이 '스님' '스님'하는데 불교용어를 잘 몰랐던 나의 귀에는 꼭 '神님' '神님'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정화전이었던 당시 해인사에는 현당 등에 대처승들이 머물렀고, 가야총림으로 불리던 관음전과 퇴설당 그리고 선열당 등에는 비구승들이 살았습니다. 나는 가야총림에서 행자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해인사에는 방장 효봉스님을 비롯 청담스님 구산스님 등 큰스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퇴설당 너머로 언뜻 언뜻 보이는 큰스님들의 좌선하시는 모습은 그야말로 선풍도골의 풍도 그대로 였습니다.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발심이 돌 때는 돌마루나 뒷마루 혹은 우물가에 앉아서 큰스님들의 흉내를 내곤 했었지요.

당장이라도 도를 깨치고야 말겠다는 그 초발심이 지금까지의 수행생활의 밑받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요즈음 수행 납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도 초발심때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공부가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것에 그냥 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공부에 진척이 없으면 포기를 하거나 타성에 젖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천산 암벽이라도 깰 것 같은 초발심때의 마음을 지속해야 합니다.

행자생활중에 염불을 익히라고 하는데 하기가 싫었습니다. 오로지 선방에 가고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스님노릇 제대로 하려면 염불도 알아야 된다고 해서 마지못해 염불도 배우고 강원에도 들어갔습니다. 강사스님께서 천수경을 가르쳐주며 외워오라고 하는데 금방 암기가 됐습니다. 반야심경을 하루만에 다 외워버리니 스님이 어디서 중노릇하다가 왔느냐고 묻더군요. 해인사에 오기전 고향에서 사서까지 익혔던 터라 문리는 어느정도 터져 있었습니다.

일제 암흑기를 막 벗어나 6·25전쟁을 치러야 했던 당시의 한국사회는 암담하고 배고프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의 눈빛은 푸르고 성성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잡생각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옷한벌에 일단사 일표음의 두타행이 저절로 되던 시절,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마음은 넉넉했습니다. 기한발도심(飢寒發道心)이라고 했어요. 춥고 배고파야 발심이 된다는 얘깁니다. 문명이 발달하여 편리해질수록 도닦기 힘들어집니다. 다 해준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절실해야 공부가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야 화두가 타파되지요. 기본자세가 잘못되면 기름때묻은 공부, 남보기에 점잖은 공부밖에 안됩니다.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인연따라 일어나지 않는게 없으니 결국 내 마음이 지어낸 일이지요"

6·25전쟁당시 은사이신 영월스님과 함께 해인사를 떠나 양산 통도사, 언양 석남사, 청도 운문사 등지를 전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팔공산 파계사 성전암이었어요. 전쟁의 와중이었는데도 공부가 참 잘 됐어요. 거기서는 화두로 밥을 먹고 화두로 길을 걷고 화두로 잠을 자는 생활이 지속됐어요. 그냥 대충 후다닥 해치우는게 없었습니다. 매사에 화두가 살아있는 생활이 계속됐지요. 그러던 어느날 가슴에 맺힌 것이 확 트이는데 모든 미운 감정들이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계속 공부를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해인사로 돌아가 절살림을 맡는 바람에 공부를 제대로 끝까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백련암에서 약 1㎞ 떨어진 곳에 옛날 조선시대 한적스님께서 벽곡(辟穀·곡식 대신 솔잎·밤 따위를 날것으로 조금씩 먹고 삶)하시며 수행하시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토굴을 짓고 2~3년간 살았습니다. 진주 응석사 토굴에서도 몇개월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종식에 장좌불와를 하며 용맹정진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공부에는 자신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집착을 그대로 두고는 발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발심하려면 먼저 나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나라는 근본무명 내지 착각을 벗어나 불성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는 곧 생명체입니다. 화두를 드는 순간, 잡념망상이 다 떨어지는 순간은 살아있는 상태요, 화두를 놓치는 순간은 곧 무명속입니다. 현실에 집착하여 분별심을 일으킴은 곧 역경계에 걸리는 것이니 이는 무명입니다. 화두를 드는 순간은 이

생활 속의 불교 ⑩⑦

주인을 제쳐두고 행세하는 시자라면…

"참 나는 만법의 근원이다. 나라에 임금이 있어 신하가 그 명을 따라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하듯이 참 나가 있음으로써 오관을 통해 움직이는 내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보이는 나는 안 보이는 나의 신하로서, 시자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 나를 나로 알지 말고 참 나를 발견하라는 것이요, 모든 것을 참 나인 주인공에 일임하라는 것이다. 시자는 시자일 뿐이니 주인을 믿고 따르면 그뿐, 주인을 제쳐두고 제가 나서서 주인 행세를 하는 한 고통과 액난은 끊이지 않고 나를 따르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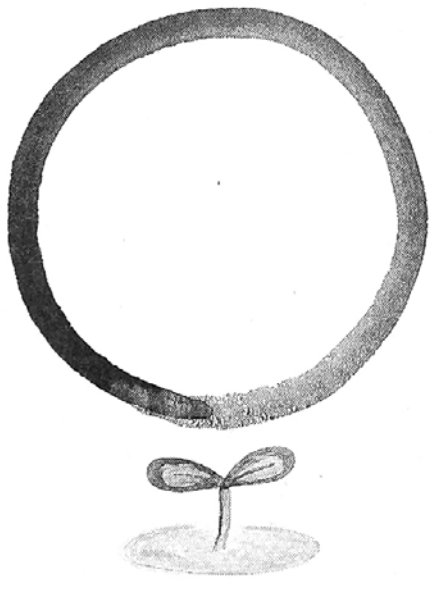
어느 누구라도 병을 싫어하고 죽음을 두려워 한다. 늙는 것을 즐겁다고 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그걸 피할 수도 없다. 태어난 것은 다 늙고 마침내는 죽는다. 고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나 사망선고를 받아 놓고 있다. 삶이란 매 순간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내게만 찾아 오는 양 두려워 한다. 이 순간 지구 상에서 수천 수만이 죽는데도 그것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깨달은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어보았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내가 죽어 참나로 거듭난 사람이요 죽음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기에 그렇다.

우리가 노·병·사의 두려움에서 벗어 나려면 깨달은 이 처럼 참 나로 살아야 한다. 그 길 밖에 없다. 시자(侍者)의 삶에서 벗어나 주인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 주인의 삶은 언제나 창조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삶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찬 삶이다. 거기엔 노·병·사 따위가 붙을 자리조차 없다.

그래서 가르침은 거짓 나를 버리고 참 나를 발견해 참 나로 살라고 강조한다.

이왕에 한 세상 살다 가는 것인데 주인으로 살아야지 시자로 살아야 할 까닭은 무엇인가. 임금으로 살아야지 신하로 살 건 뭔가. 노·병·사가 붙지 않는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 것이지 싫다면서, 두렵다면서 노·병·사를 껴안고 살 건 뭔가.



그럼에도 우리들은 시자의 삶을 고집한다.어리석게도 거기에 집착한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하면서도 스스로 시자이기를 원한다.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참 나인 주인을 만나 주인으로 살려면 버려야 한다. 놓아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나다, 내 것이다 하는 생각 좋다 싫다하는 생각을 놓아야 한다. 그런 분별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죽기를 각오한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진다.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죽음이 발 붙일 곳을 잃듯이 노·병·사에 대한 분별을 놓아 버리면 삶은 그 순간부터 시자를 부리는 주인의 삶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시자인 이 거짓 나를 참 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놓으려고도 버리려고도 하질 않는다. 보이지 않는 나, 주인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는 것은 깨닫기 전이면 어느 누구라도 완전한 앎이 아니다. 고작해야 글줄이나 조금 읽었고 한 줌 밖에 안되는 경험을 통해 이 거대한 세계의 한 모퉁이, 좁쌀만한 부분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다 아는 양 제 스스로 관념의 벽을 쌓고 그 안에 갇혀산다. 주인을 믿기는 커녕 시자로서도 아주 어리석은 시자임을 자처하며 산다. 그러기에 고통과 액난이 끊이지 않고 내 뒤를 따라 다니는 것이다.

참 나인 주인을 무조건 믿는 것만이 나를 해방시켜 준다. 무조건적인 믿음은 맹목(盲目)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겠다는 의지이다.

배우려하지 않는 제자에겐 스승도 가르칠 게 없다.

협찬 : 김 희 성

큰스님 수행한담

모든 망상 없어집니다”

“태풍부는 바다에 배 띄우면 파선하듯 집착 그대로 두고 발심해야 헛공부 팔만사천 번뇌 사그라뜨리려면 ‘나’를 버리는 정진 있어야 합니다”



◇호랑이까지도 와서 법문을 들을 정도로 도력이 높았던 경하스님(오른쪽). 사진 찍을 당시 노스님의 세수는 89세, 고봉스님(왼쪽)은 26세였다.

“일체가 다 스승이고 일체처가 다 법석이죠” 근본 마음자리에서는 시방세계 두루 통해

런 경계가 다 떨어져 버리니 화두는 곧 생명이요 광명이며 지혜고 문수입니다.

〈금강경〉의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타납니다.

약보살(若菩薩)이 심주어법(心住於法)하고 이행보시(而行布施)하면 여인(如人)이 입암(入闇)에 즉무소견(則無所見)이니라. 약보살(若菩薩)이 심불주법(心不住法)하고 이행보시(而行布施)하면 여인(如人)이 유목(有目)하고 일광(日光)이 명조(明照)하야 견(見) 종종색(種種色)이니라.

(만약에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 있으면서 보시를 행하면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 아무 것도 못보는 것과 같고, 만약에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마치 사람의 눈이 있고 햇빛이 밝게 비쳐 가지 가지의 색을 봄과 같으니라)

화두를 들고 놓는 것도 이와같아 화두를 들면 모든 것에 걸리지 않으니 광명이요 태양이지만 화두를 놓치면 곧 무명입니다. 화두가 순일하게 잘 이어지려면 나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집착이 모두 떨어져야 합니다.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배를 띄워봐야 배는 파산하고 맙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떨어져야 합니다. 마음속의 바람이 가라 앉아야 화두를 들면 순식간에 쏙 몰입하게 됩니다.

이런 도리는 제가 공부를 해봐서 잘 압니다. 공부가 잘 안될 때는 반드시 세간사 어떤 일에 걸려 있어요. 그런게 남아 있으니까 공부가 안돼요. 그게 다 떨어진 순간이 바로 발심입니다.

은사이신 영월스님은 일평생 참선만 하신 분입니다. ‘참선공부만 하라’는게 스님의 평소 지론이셨습니다. 다른 것은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죽어서 뭐 될래? 공부하라’는게 스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책을 보고 경학을 공부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참선수행 일변도의 외곬은 스님의 열반송에도 잘 나타나 있어 지금도 노상 외우고 있습니다.

八十人間事 猶如夢中夢
古路依舊然 山上白雲歸
한평생 사람일이 꿈속의 꿈이로다
변함없는 옛길따라 흰구름 돌아가네

내가 25세되던 무렵 희랑대에 경하노스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일어나다 현기증으로 쓰러지셨는데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거동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노스님이 제은사이신 영월스님한테 시봉을 부탁했는데 제가 그 소임을 맡게 됐어요.

노장님이 시봉을 받으시다 미안해서 안되겠다며 저더러 법상좌가 돼 달라고 해요. 그래야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체가 다 나의 스승이요, 일체처가 다 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하스님은 독성님(나반존자)과 인연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경하스님의 은사이신 우련스님이 상좌가 없어서 독성님에게 1주일간 기도를 했더랍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주일 되던 날 초라한 행색의 한 젊은이가 올라오는데 스님이 되고자왔다고 해요. 시원찮아 보였는데 기도회향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산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경하스님입니다. 경하스님은 당시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지던 등창(종기)이 있어서 절에 들어 왔는데 어떻게나 신심이 깊던지 아주 신명나게 절도 하고 염불도 하고 그랬답니다.

어쨌든 경하스님이 들어오고 나서 절에 불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논도 사고 밭도 사고 부자가 됐어요. 하루는 경하스님이 꿈을 꾸었는데 웬 노인이 한뼘도 더 되는 커다란 침을 갖고 와서 한손으로 스님의 머리를 꽉 잡고는 “이놈, 꼼짝마라”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러고는 침을 꽉 찌르는데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잠을 깼답니다. 이날 이후로 등창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독성님과의 인연으로 해인사에 오신 경하스님은 경학에도 능하고 전계도 받는 등 대법사가 되셨습니다. 해인사주지도 2번이나 하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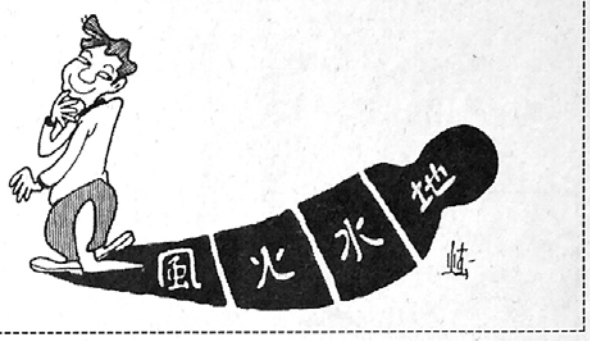
하루는 통영에서 49재가 들어왔는데 재주(齋主)가 여타 중진스님들을 제쳐놓고 경하스님더러 49일간 법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백련암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서는 포효를 하는 바람에 대중들이 재를 잘못 지냈는 줄 알고 겁을 집어먹고 크게 당황했어요.

경하스님이 대중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화엄경〉을 설하니까 산신(호랑이)이 신심이 나서 이러는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호랑이가 스님앞에 오더니 넙죽 엎드렸습니다. 스님이 호랑이더러 저쪽으로 가라고 지시하니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49일내내 계속 와서 법문을 듣더니 재가 끝나자 은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경하스님을 시봉하는 동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호랑이도 감명시킬수 있는 신심을 가진 불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극한 불심앞에서는 미물이나 천지자연도 저절로 감응하게 마련입니다. 근본 마음자리에서는 시방세계 어느 한구석 통하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집착을 티끌도 남김없이 완전히 놓아 버리면 곧 우주심과 하나가 됩니다. 그때는 달리 삼매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모든 집착을 놓는 일은 아상을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라는 생각, 내것이라는 소유심이 팔만사천 번뇌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망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보면 뛰어넘어야 할 장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뿌리를 잘 다스리면 망상은 없어집니다. 거부함이 없이 망상의 실체를 반조하십시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01

박 순 달

4大와 原子 ③

4大설

4대 모든 물질 발생시키는 씨앗 역할 부파불교시대 발전 ‘대비바사론’ 설명

원시불교 이후부터 단합하여 유지되던 승가단은 사회 변천과정에서 생겨난 법의 해석과 계율의 완화문제로 점차 보수와 진보사이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해 불멸후 100년경에 보수적인 상좌부와 진보적인 대중부로 나뉘게 된다. 불멸후 300여년 쯤, 즉 기원전 1세기 때는 불교의 부파가 20여개로 늘어났다. 부파불교 시대의 기본적인 문헌에는 〈발지론〉과 〈대비바사론〉 등이 있다. 〈발지론〉은 지혜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책이고 〈대비바사론〉은 이 책의 주석서로 200권으로 된 한역본이 있다. 부파불교시대에 일체에 대한 개념으로 5온(蘊), 12처(處), 18계(界) 등을 꼽는다. 일체란 모든 법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18계란 12처에다 6식을 합한 것이다. 각 온은 4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5온, 12처, 18계의 일체분류에 있어서 5온은 물질부분이 색 하나로 돼 있고 12처, 18계에서는 6근중 5근과 6경이 물질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4대는 지, 수, 화, 풍을 말하는데 이 개념은 기원전 8세기 우파니샤드시대 때 이미 형성된 것으로 모든 물체의 바탕이 되는 원소이다. 그전에는 지(地) 하나였던 것이 점차 분류되어 지, 수, 화, 풍이 되었다. 4大는 지수화풍의 사4대(事4大)와 견고성(堅固性), 습윤성(濕潤性), 온습성(溫濕性), 행동성(行動性)의 성4대(性4大)가 있는데 이 두 4大의 관계에 대해 지는 고체성인 견성(堅性)을 가지는 것, 수는 액체성인 습성(濕性)을 가지는 것, 화는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난성(煖性)을 가지는 것, 풍은 운동하는 동성(動性)을 가지는 것으로 연결된다. 4대가 모든 물체를 발생하는 씨앗의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4大種이라고도 칭한다. 대종은 비유로 천제(天帝)와 같은 성능이 있으며, 모든 물체를 마음대로 만드는 자재천왕(自在天王)과 같고, 해와 달에 해당하는 일월륜과 같으며, 큰 나무의 수신(樹身)에 해당하는 것이고, 큰 장벽과 같아서 조성된 물체는 장벽에서 발생하는 그림자와 동일해 등불과도 같다고 설명한다. 모든 물체는 지, 수, 화, 풍의 4대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란 뜻에서 소조물(所造物)이라고도 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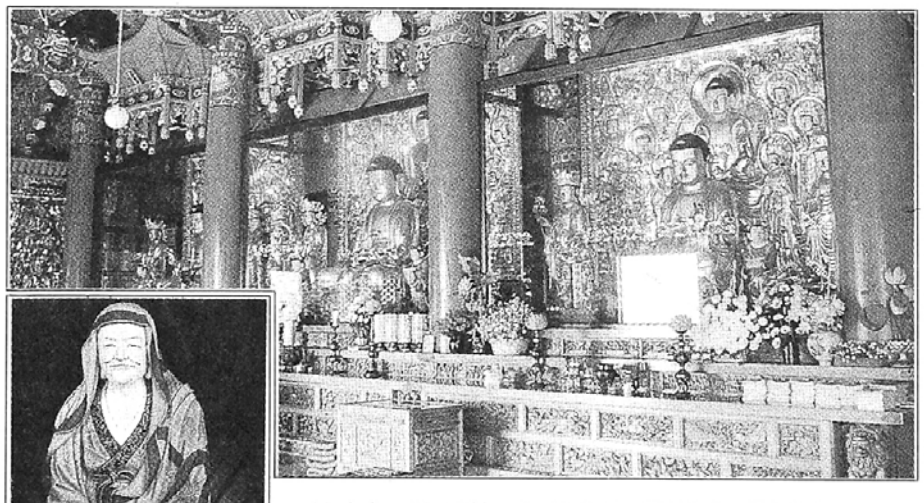
이 4대설은 부파불교시대를 지내는 동안 더욱 발전하여 〈대비바사론〉에는 이들 4대에 대해 몸의 것은 내면으로, 몸 외의 부분은 외면으로 나누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지대(地大)에 대해서 내면의 견성이란 털, 손톱, 치아, 뼈와 같이 몸안에 있는 견고한 것등을 말하고 외면의 견성이란 산, 땅, 초목, 철, 금, 진주, 산호 등 몸외의 자연계에 있는 물질 등을 말한다. 수대(水大)에 대해서 내면의 습성이란 눈물, 혈액, 뇌 등 몸에 있는 액체 등을 말하고 외면의 습성은 강물, 샘물, 바닷물 등과 같이 자연계에 있는 물질 등을 말한다. 화대(火大)에 대하여 내면의 난성 몸에 있는 열기이고 외면의 난성은 횃불, 태양열 등 자연계의 열기를 말한다. 풍대(風大)에 대해서 내면의 동성은 몸 안에서 부는 바람인 상행풍과 하행풍이고 그 밖에도 숨쉬는 입식풍, 출식풍 등이 있다. 외면의 동성은 몸밖의 외부의 바람으로 사방풍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물질의 단위에 있어서는 최소의 물체를 극미(極微), 가장 큰 물체를 기세간(器世間)이라 한다. 기세간이란 우주를 말한다. 〈대비바사론〉에 의하면 그 단위는 극미(極微), 미진(微塵), 동진(銅塵), 수진(水塵), 토모진(兎毛塵), 양모진(羊毛塵), 우모진(牛毛塵), 향유진(向遊塵), 기(蟣), 슬(蝨), 광맥(穬麥), 지절(指節), 주(肘), 궁(弓), 구로사(俱盧舍), 유선나(踰繕那) 등 16종류로 설명하고 있다. 극미는 물질 가운데서 최소단위로 가장 미세한 물체라는 뜻에서 최세색(最細色)이라고도 한다. 만약 극미를 더 분할하면 곧 공(空)이 된다. 이들 단위는 보통 7배씩 커지며 지절은 손가락의 한 마디, 1주는 손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 1궁은 4주를 이어 놓은 것에 해당하고 구로사는 활을 400개 이어놓은 거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유선나는 유순(由旬)이라고도 표현하며 인도(印度)에서 거리를 표시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이 유순은 60리의 거리를 뜻한다. 그리고 〈대비바사론〉에 의하면 8구로사를 합한 길이를 1유순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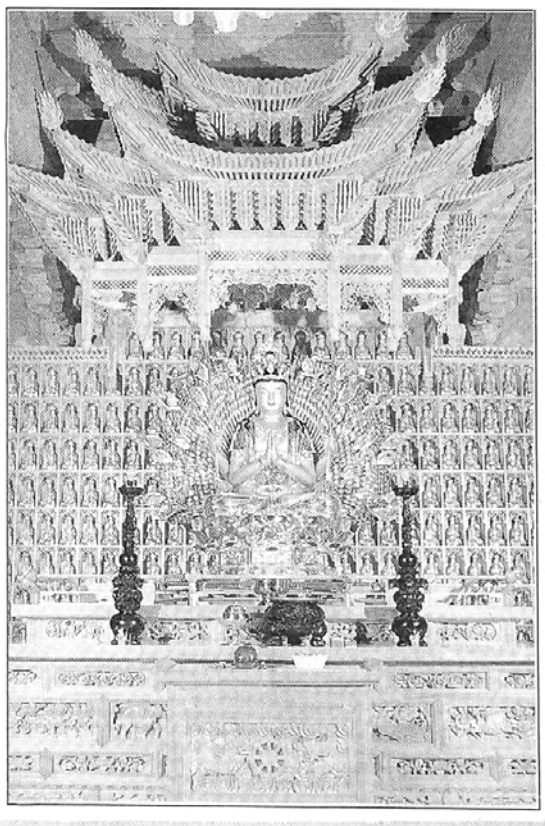
〈서울대교수 · 산업공학과〉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고은 불교대하소설



111

그들의 여행



큰고기 덕택에 니민달라까지 온 두마리 물고기 우식과 만우는…

"저희에겐 갈곳이 있습니다 수미산으로…" "그까짓 티끌만도 못한곳에 가려느냐"

며칠이 지났을까. 아니면 몇달이 지났을까.

우식과 만우의 시신은 거친 파도더미에 부딪쳐 가라앉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하는 동안 고기들이 몰려와서 한 점씩 뜯어먹히는 동안에도 그들의 의식(意識)은 하늘 높이 올라가 있으면서 그 자신의 시신이 조금씩 망가지는 것을 남의 일처럼 내려다 볼 수 있었다.

그러다가 그 의식은 제7식이나 제8식과는 달리 아직 너덜너덜 남겨져 있는 시신에 내려와서 어디에 그 둥지를 틀까 망설이다가 거의 드러난 갈비뼈 따위를 아무런 대책 없이 살펴보는가 하면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가 있었다.

그런 의식놀이의 의식이 몇번 되풀이된 뒤로는 아예 이 세상의 바다 따위와는 동떨어진 하늘의 허공계로 사라진 뒤 제8식 아뢰야식의 투명한 무형체만으로 떠돌던 시간을 마감한 뒤 수미산으로부터 가장 먼 금륜의 외벽인 철위산의 그 우의덩어리 몇천길 남떠러지 밑의 바다에 내려앉았다. 이른바 대함해(大鹹海)였다.

어떤 절차도 없이 그 바다의 두 마리 고기로 태어났다. 어미도 없었고 막 태어난 자취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살아온 것처럼 낯설지도 않았다.

하기야 방금 태어난 그 순결한 본능은 수많은 전생다생의 어떤 기억을 문득 떠올릴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 세계의 끄트머리와도 같은 그곳 철위산 밑의 바다조차도 아득히 지난 생의 한 터전이었음에 틀림없다.

뭇 중생이란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어디 가지 않은 곳이 없는 생명들이 아닌가. 그러므로 뭇 중생들이란 어느 한 곳만으로 고향을 삼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애착인가.

이 세계의 어느 곳은 고향이 아니고 타향이 아닌 것을 방금 철위산 밑의 바다에 태어난 두 마리 고기 우식과 만우는 그들의 작은 몸으로 헤엄쳐 갔다.

저쪽의 바다속에서 그들보다 몇곱절이나 큰 덩치의 고기가 보였다. 우식과 만우는 그 커다란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도 모르고 그들 자신조차 무슨 고기인지 모르는 그 이름없는 바다에서 문득 공포에 떠는 입로 그곳의 첫 생활을 시작하였다.

"무섭다!" 라고 우식이 눈을 커다랗게 껌벅였다. 그러자 만우도 "나도 무섭다!" 라고 우식에게 바짝 다가갔다.

그러자 벌써 그들의 눈 앞에 다가온 커다란 몸뚱어리의 고기가 말하였다.

"괜찮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나 해치는 고기가 아니란다. 그보다는 방금 이 바다에 온 너희들에게 이 바다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일과 이 바다 건너 다른 산 가까이에 당분간 너희들이 살 곳으로 데려다주려고 온 것이란다."

"……."

"자 나랑 가보자.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따금 쉬면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어서 헤엄쳐 가자꾸나."

두 마리의 작은 고기는 그때에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힘껏 꼬리를 치며 헤엄쳐 갔다. 가는 동안 배가 고프면 바다밑에 얼마든지 있는 연산호나 흑산호 숲에서 먹거리를 찾았다.

얼마나 헤엄쳐 갔을까. 바다속에 어떤 변랑이 나타났다.

그들은 똑바로 가야할 길이 막혔으므로 잠시 방향을 잡지 못하였다. 그때 큰 고기가 뒤쪽에서 달려왔다.

"길은 언제나 똑바로 가야한다. 그러나 길이 막히면 한동안 멈춰 당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마치 너희들을 가로막고 있는 저 바위벼랑처럼 아주 태연하게…."

"……."

"나한테 두가지 방편이 있다."

그때에야 만우가 물었다.

"수미산? 하하 수미산이라… 그까짓 티끌만도 못한 곳에 가려느냐?"

"……."

"됐다. 가고 싶거든 어서 가야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그 수미산인가 탓동산인가 하는데를 빨리 가고 싶다면 다른 하나의 방편이 있다."

"네?"

"내가 너희들을 삼켜서 내 몸 속에 집어넣고 내가 가는 속도에 맡겨두면 되느니라."

만우가 더럭 겁이 나 눈이 커졌다.

그때 큰 고기가 말하였다.

"안심하여라. 너희들이나 잡아먹을 내가 아니란다. 나는 다만 내 몸속에 너희들을 넣었다가 뱉아줄 터이니까."

이 말이 나오자마자 큰 고기는 어떤 생각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우식과 만우를 덥썩 입 안에 넣어 뱃속에 내려보내는 것이었다.

두 마리의 고기 우식과 만우에게 처음에는 그 어둠과 숨막힐듯한 큰 고기의 내장이 무척이나 무서운 곳이었으나 그 내장에는 아주 따뜻한 방이 있었고 그 방안은 마치 인광(燐光)과 같은 파란 빛과 꽃향기가 채워져 있었다.

더구나 그 방의 자궁(子宮)과도 같은 부드러운 벽은 바깥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장치로 되어있어서 큰 고기가 말하는 소리와 바다 깊은 곳의 다른 고기들이 헤엄치며 말하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었다.

"야 여기는 꿈속이구나."

"그렇구나. 이 꿈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부드러운 방의 벽으로 울려오는 큰 고기의 말이 들려왔다.

"꿈이라면 그 무엇도 꿈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단다. 그러나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 내 뱃속이다. 너희들이 꾼 꿈이 아니란다. … 그런데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너희들의 즐거움이 바로 내 공덕이 아니더냐."

"아아."

"그런데 말이다. … 장차 너희들이 다다를 데는 내 뱃속 따위가 아니라 그야말로 본래 그대로의 천진(天眞)이 흠로 즐거운 바(異明)인 그곳이란다. …그러니 수미산 꼭대기나 그 꼭대기 위의 드높은 허공계 색계 무색계도 다 티끌이란 말이지."

"아아."

"허허 너희들이 벌써 환희의 마음이 일어나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안성맞춤인 일이 사실은 우주 안의 큰 일이란다. 어서 가자."

바다 속의 큰 고기는 다른 고기의 몇천배나 빠르게 헤엄쳐가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헤엄친다기보다 날아간다고 하는 것이 옳았다.

가거라
가거라
용궁이 나타나도 아랑곳하지 말고
가거라
용궁 따위 숫제 군더더기

큰 고기가 그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건넜는지 모르게 두 마리 고기 우식과 만우는 철위산 바다에서 물속 벼랑의 한 골짝을 수미산 방향으로 첫번째 산줄기 가까운 바다에 이르렀다.

그동안 일곱산줄기도 수미산보다는 못하지만 물 위로 1만유순이 넘고 물밑으로 8만유순이나 넘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그런 일곱산줄기 사이의 드넓은 곳을 채운 여덟바다의 넓이나 깊이 또한 사람의 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규모인데 바로 그 바다 속에는 찬란한 용궁이 있고 그 용궁이 주재하는 작은 용궁들이 여기저기에 있어서 바다 속의 세계를 본래 그대로 다스리고 있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권세를 휘두르는 일이나 어떤 일을 제지하는 일 따위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주의 하나인 물의 세계를 그 세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대로 있게 하는 그런 힘의 발휘인 것이다.

작은 고기 우식과 만우는 큰 고기의 배려로 그런 용궁나들이를 그만 두고 그들이 갈 곳에 조금이라도 먼저 가도록 되어 있었다.

용궁이야 앞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다.

말하자면 그들이 살 곳이 아닌 철위산 밑의 대함해를 쉽게 건너는 일이 그곳의 큰 고기가 두 마리의 작은 고기를 돕는 일이었다.

"자 이제 됐다. 나오너라" 라고 큰 고기의 내장이 움직이며 그 속에 있던 그들을 조금씩 뱉아내는 것이었다. 마지막에 큰 고기의 입안에 있는 날카로운 이빨에 비늘 몇개가 떨어져나가는 사고는 있었으나 마치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들은 큰 고기의 입 밖으로 토해져 나왔다.

"자 너희들의 길을 가거라. 나는 돌아가겠다" 라고 큰 고기가 말하였다. 그리고 물건을 다 팔고 가는 흡가분한 장사꾼처럼 뒤돌아 가는 것이었다.

두 마리의 고기 우식과 만우는 미처 고맙다는 인사치레도 할 겨를이 없었다. 큰 고기는 마치 사바세계 섬부주의 아주 잘 달리는 말을 재촉해서 삽시간에 가물거리는 곳으로 사라지는 기사처럼 사라지고 만 것이다.

두 마리의 고기 우식과 만우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런 작별이야말로 이 세계의 이치임을 문득 깨달을 수 있었다. 아마도 인간이나 천신보다도 축생쪽의 중생들이 그런 작별에 훨씬 익숙한 것인지 모른다.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거의 무심(無心)의 상태인 그 짐승들의 작별이야말로 얼마나 깨끗한 것인가.

대함해는 동서남북의 4주(四洲)를 마치 네개의 섬으로 띄운 커다란 짠 물바다인데 그 크기가 철위산에서 니민달라산(尼民達羅山)까지 32만2천유순이나 된다.

그런 머나먼 거리를 큰 고기의 덕택으로 니민달라산 부근에까지 건너올 수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행을 피할 수 있었던가. 그런 일도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식과 만우가 섬부주 무욕도에서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 어떤 희부리기도 하지 않고 부지런한 바가 그런 선과(善果)를 맺은 셈이다.

철위산 밖으로는 일곱 금산(七金山)이 가운데 가장 밖에 있는 그 니민달라에서 두 마리의 고기 우식과 만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림 · 조향숙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사무장(관리인)구직
■43세고졸) 불교교양대 졸업
■면허증소지, 지방근무가능
■불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찰 사무 및 관리 업무를 하고싶습니다
연락처 : 0343-94-3237
서원 합장

氣 치료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으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최고의 효도 선물 - 파-워봉 요법
보건복지부 허가 제558호 보건복지부 품목허가 제1호
■ 파-워봉 요법은 전혀 피부를 찌르지 않고, 압통점(경혈)을 자극하여 통증을 조절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신속하고 획기적인 동양의학요법입니다.
■ 파-워봉 요법은 머리, 허리, 어깨, 목, 관절, 팔, 다리, 무릎 등 불편한 곳에 대고 지그시 눌러주면 즉석에서 편안해지는 느낌을 체험하실수 있습니다.
■ 허리, 무릎, 관절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반영구적제품>
<보급형 종합셋트> 150,000원

■ 머리가 상하게 아프십니까?
■ 목덜미가 항상 뻐근합니까?
■ 어깨가 옵시 아프고 팔이 뒤로 안올라갑니까?
■ 손끝과 팔이 저리십니까?
■ 허리가 옵시 아프십니까
■ 팔꿈치가 옵시 아프십니까
■ 무릎에 물이 생기고 아프십니까?
■ 다리가 저리고 뻣기십니까?
■ 엄지 발가락이 많이 아프십니까?
■ 얼굴이 달아오르고 어지럽습니까?
■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습니까?
■ 복부가 항상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습니까?
■ 전립선으로 고생하십니까?
■ 치료를 받아도 재발 합니까?
자매품 : 신선대, 신선구, 파워쉘, 건강팔찌, 버클, 목걸이
⊙ 파워봉 / 원기 보존법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天一氣功研究會파워-봉 研究學會
전화문의 02) 455- 6944(대)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님 · 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의성군
■법당 1동, 산신각1동, 미륵님, 요사채2동(현대식), 사용평수 :1300평
■가격 : 1억2천(가격절충가능)
연락처 : 0576)862-0674

취업을 원합니다
경력 25년(1종보통)
중고베스타 12인승 소유
지역에 상관없이 일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0523-81-3200
김호준 합장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 36평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 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법천(제천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상 수미단 좌우 복전함
• 충상(성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팔부천 문짝
• 충무(성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천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천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京下 합장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대원사
전화 : 0331)262-0606

543/7306
외행성 관절염 전문
좌골 신경통 (3회골)
張三洙 합장
711/4370

'경전요점 노트' 어려운 교리 쏙쏙

청계사 '법화경 줄거리와 …' 펴내

28명 한 품씩 맡아 간추려 편집

"무조건 독송하다 뜻 알게돼 기뻐"

'경전요점 노트'를 아십니까.

28명이 한 품씩 맡아 불법의 요점만을 간추려 편집한 경전요점노트가 최근 불자들의 새로운 교리공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의왕시 청계사(주지 지명)가 〈법화경 줄거리와 요점처 노트〉를 내놓은데 이어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지홍)도 금년을 '경전을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다'는 계획을 수립, 교리공부는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경전 요점노트는 신심배양과 포교에 아주 적절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불교교리가 쉽게 풀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도들과 함께 경전을 풀이해 〈법화경의 줄거리와 요점처 노트〉를 펴낸 지명스님(의왕시 청계사 주지)의 경전모임 예찬론이다.

경전모임은 청계사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으로 이제는 일반화 돼 있는 신행활동이다. 학문연구모임이기 보다는 경전을 독송하려는 신도들을 위한 공부모임이다.



◇경전의 요점만을 간추려 한글로 펴낸 〈경전요점노트〉가 불자들의 교리공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이같은 경전모임이 시작된 것은 지난 94년. 영등포 포교원에서 도심포교활동을 펼치던 지명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실시한 경전공부를 토대로 〈지장경〉을 펴내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본격화됐다.

지명스님은 "처음 신도들에게 불교교리를 습득하게 하기 위해 경전공부를 발원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 신도들은 무작정 어렵다고만 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다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경전의 줄거리를 모은 요점노트를 펴내게 됐다"고 말했다.

경전요점노트의 특징은 신도들이 대부분 저학력이고 고령이라는 특징을 감안, 한문투성이인 경전을 신행활동에 도움되는 요점만을 간추려 편집했다는 것. 이로인해 그동안 경전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독송하던 신도들은 불법공부가 깊어져 기도도 잘되고 절에 오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다.

경전요점노트는 무엇보다 이해가 빠르다. 칠순의 할머니부터 10대의 청소년들까지도 누구나 불법에 쉽게 감화될 수 있고 포교의 역량도 키울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장점도 지니고 있다.

경전요점노트는 요점만 간추려 놓았기 때문에 한문경전과는 다른점이 많다. 우선 분량이 적고 짧은 시간에 경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십년간 뜻도 모른채 수지독송하던 기도의 방법을 바꿔놓은 것이다.

20여년간 신행생활을 해왔다는 한 길수씨는 "나름대로 열심히 경전공부를 해왔으나 경전의 이름만 알았지 각 경전의 의미를 몰랐다"며 "경전요점노트로 공부하니 머리에 쏙쏙 들어와 신행활동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청계사 경전공부는 매월 음력 24일 관음재일 한차례. 하지만 신도들의 반응이 좋아 월 2~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토대로 각 경전마다 요점노트를 연차적으로 펴내 청계사 신도는 물론 각 사찰 신도들에게 보급할 방침이다.

김중근 기자



◇입학전 사찰에서 올바른 캠퍼스 문화를 배우고 있는 예비 대학생들.

"준비하는 자 미래 밝다"

능인선원 '예비대학생 강좌' … 2월 1일까지

대학은 과연 낭만의 공간인가. 입시지옥에서 벗어난다고 고스란히 자유로운가. 낭만 자유 학문도 미리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능인선원(원장 지광)은 지난 20일 예비대학생을 비롯 학부모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예비대학생을 위한 능인 청소년 교양강좌'를 개설했다. 이번 강좌는 오는 2월 1일까지 계속된다.

첫날에는 화두와 용맹정진(지광스님), 21일에는 대학캠퍼스의 올바른 예절(서강대 서정목 교수)이 치뤄지는 등 능인선원은 청소년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보고서는 컴퓨터로 작성해야 됩니다. 질문은 활발히 하고 모든 강의는 노트해야 합니다." 캠퍼스 예절론에 대한 서정목교수의 강의가 진행될 수록 3백여명의 예비대학생들은 눈빛은 더욱 초롱초롱 해졌다.

송호윤군(휘문고졸 · 수원 협성대 성악과)은 "캠퍼스의 생활이 낭만만 있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 준비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며 "오늘부터 보람된 대학생활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번 강좌는 30일 예비 신사숙녀(경희대 이동신교수), 미국캠퍼스의 낭만(동국대 박정국교수), 31일 독일캠퍼스의 열정(성균관대 손동현 교수), 북에서 보낸 나의 꽃다운 시절(전 북한 만수대 예술단 신영희씨), 2월 1일 우리가락 우리멋(중앙대 박범훈교수) 등 총 10회에 걸쳐 마련된다.

지광스님은 "새로운 출발선에 있는 예비대학생시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각 교수들의 강의를 잘 들으면 대학생활을 엮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능인선원은 매년 동 · 하계 겨울방학을 이용, 상설적으로 개설할 방침이다.

선재연구모임 '선재들의 속삭임' 2월 창간

10대들 껴안는 '쪽지 포교'

'10대들을 잡아라'

선재연구모임(회장 법명스님)은 신세대 청소년 포교를 위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같은 특명을 내렸다. 바로 10대들을 부처님 품으로 이끄는 '쪽지 포교'다.

선재연구모임은 △불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바른 이해 △바른 청소년문화 선도 △건전한 청소년상 확립을 목적으로 10대들을 위한 쪽지 〈선재들의 속삭임〉을 오는 2월 창간한다고 밝혔다.

월간 〈선재들의 속삭임〉은 16면으로 청소년들의 고민을 편지를 통해 들어보고 답하는 형식의 '이런 고민이 있어요'를 비롯 명사들의 청소년 시절, 이럴 때 이런 생각, 어른들은 몰라요, 신토불이 자부심, 문화단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발행된다. 또 〈선재들의 속삭임〉은 월 1만부를 전국의 사찰 학교 불교학생회를 비롯 청소년 유관기관에 무료로 배포해 청소년 포교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선재마을 청소년법당 유지선 법사는 "청소년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포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책자(쪽지) 발행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선재연구모임이 각 종교별로 '10대들을 위한 쪽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타종교의 경우 20여년 전부터 청소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0대들만을 위한 쪽지를 발행한 결과 청소년 전도에 큰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계는 〈아힘사〉를 비롯 3종류가 발행되고 있으나 효과와 반응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선재연구모임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타종교는 청소년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성(性), 진로, 가정등의 문제를 다룬 상담지를 비롯 문화지, 환경지, 소식지, 신앙지 등 각 분야별로 쪽지를 발행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종교를 선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교계의 쪽지는 교리, 시, 수필, 알림 등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청소년들에게 호평을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쪽지가 청소년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휴대가 편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며 10대들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내용 등이 다양하게 수록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창간되는 〈선재들의 속삭임〉은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방향 설정은 물론 청소년 포교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 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2월 28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의식실기	불교학특강	불교복지론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상담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출판화제

'무비스님 현토과목 화엄경' 나와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최근 방대한 〈화엄경〉 원문에 토를 달고 단락을 나눈 〈무비스님 현토과목(懸吐科目) 화엄경 원문〉(전 4권)을 출간했다.

〈현토과목 화엄경〉은 전통강원본인 80권본 〈화엄경〉과 '보현행원품'을 합하여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세밀하게 과목(科目; 중간제목, 단락 구분)을 붙여 내용파악을 용이하게 한 책. 이번 〈화엄경〉 현토과목 작업은 전통강원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용으로 꾸며졌다. 이 책의 저자인 무비스님(조계종 승가대학원장)은 80권본 〈화엄경〉을 한글로 번역 출간한 바 있다. 500질 한정판, 값 13만원.

황면스님 '생명, 그영원한 신비' 출간



'불교국가 의약품 보내기 운동본부' 실행대표인 황면스님(前 조계종 기획실 기획국장)이 종교 의학 법학에서 규명한 생명의 본질을 다룬 책 〈생명, 그 영원한 신비〉(대흥기획 刊)를 펴냈다.

종교 철학 과학의 목적을 인간 생명의 발현을 위한 것으로 보는 황면스님은 불교의 참선이 생명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참 생명의 발견은 곧 깨달음이요, 참 생명의 본질과 이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은 분이다"는 생각에서다.

정광수씨 평론집 '禪문학과 벽암록'



시인 정광수씨(해동문학 주간)가 두번째 문학평론집 〈禪 문학과 벽암록(碧巖錄)〉(한누리미디어 刊)을 출간했다. 첫번째 평론집 〈禪의 논리와 초월적 상징〉(93) 이후 쓴 평론을 묶어 낸 〈선문학과 벽암록〉은 구탑 26일 한국문인협회(회장 황명) 동포(東鋪)문학상 본상을 수상한 평론집.

제1부는 일련의 불교문학관련 논문인 '선문학과 벽암록의 가치' '자타카 문학' '불교문학과 대승경전의 세계' '한국불교시 계보' 등 11편을, 제2부는 유망 시인들의 시평(詩評)을 실었다. 제3부는 저자의 시세계를, 제4부는 저자의 문학적 철학을 다루었다.

구미 禪문학 새 장르 정착

김현창교수 '세계문학속의 동양사상' 펴내





"최근 20여년 간은 구미 禪문학의 활발한 창조기였다. '禪과 비트세대', '선과 히피문화', '선과 정신분석학', '미국 전위음악과 선', '무정형(無定型)미술과 선', '선과 미국 철학사상', '칼 융과 선' 등 무수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문학장르를 이룩하게 된 禪이 구미 문명권에 의해 인정, 수락되기까지 사상적 배경과 과정 등을 규명하고 '구미 선문학'의 본질을 본격적으로 분석 연구한 책이 나와 화제다. 서울대 스페인·중남미연구소장 김현창교수(62·서어서문학과)가 쓴 문학평론집 〈세계문학 속의 동양사상〉(서울대출판부 刊)이 그것이다.

'문학과 道'를 부제로 단 이 책에서 김교수는 "선불교는 1900년경에 미국에 전해져 태평양전쟁(1940) 이후 급격히 성장해 오늘날 구미 문화의 중심부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고 파악한다. 또 "선불교가 오만한 서구문명의 우월감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고도 평가한다. 특히 공안(公案)의 신비, 선문답의 다양한 기교, 좌선법과 견성의 강조 등 禪의 독창적인 방법론이 '구미 선문학'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김교수는 구미 선문학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르네상스'에 속하는 알렌 긴스버그 등 비트(Beat; 히피) 시인들에 의해 처음 발생했지만, 서구 여러나라 중 선불교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기울인 나라는 독일이었음을 지적한다.

불교사상을 처음으로 체계화하여 서구 철학계에 소개한 쇼펜하우어, 약 40쪽에 달하는 〈선구집(禪句集)〉을 남겨 놓은 헤르만 헤세, 최근 禪사상과 많은 비교연구가 되고 있는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 서구 선문학의 거장이 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등이 모두 게르만계였다는 설명이다.

유명한 구미 '禪' 애호가와 전문가는 이밖에도 무수히 많다. '서구 선문학' 출생에 산파역을 한 일본의 스즈키교수와 한국에서 참선한 경력이 있는 블리드는 禪의 구미 소개에 쌍벽을 이루고 있다. 이외 독일계 미국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 아르헨티나의 보르헤스와 코르타사르, 스페인의 히메네스 등 수많은 작가와 학자들이 동양에와 실제로 참선을 경험하고 많은 저서와 논문을 내놓았다.

이처럼 다양한 서구 작가와 학자들의 禪사상을 분석하는 외에 유·불·선·인도철학 등 현대 세계문학에서의 동양사상의 영향을 논하고 있는 김교수는 "이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의 제공과 자극제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만공선사의 제자인 춘성스님의 속가 제자이다.

김재경 기자

공안·선문답·좌선등 2차대전 후 급속 확산

정신분석학·전위음악·무정형미술 등에 영향

화두참구 요체담긴 서간문 '書狀' 국역

화제의 책

참선의 길 장순용 옮김



장순용씨(동국역경원 역경위원)가 번역한 〈참선의 길〉은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를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일명 〈서장(書狀)〉으로 불리는 이 선어록은 화두참구의 요체를 간명하게 설명한 서간문으로 유명하다.

이 책의 저자인 대혜(大慧; 1089~1163) 선사는 〈서장〉에서 남송(南宋)대의 명사인 40여명의 재가 수행자들(2명은 스님)과의 서신왕래를 통해 간화선(看話禪)을 경험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시끄러운 곳에서도 끊임없이 화두를 탐구하도록 하는 동정일여(動靜一如)의 공부는 바쁜 현대의 수행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제종의 10대 법손이며 〈벽암록〉을 쓴 원오선사의 제자인 대혜선사는 좌선의 고요함에만 빠져있던 묵조선(默照禪)을 배격하고 공안(公案)을 참구하여 깨달음에 들어가는 간화선을 정착시킨 고승이다. 〈고려원 7천5백원〉

새로나온 책...



▲피안을 향한 지혜의 길(해공스님 지음)=지장도량으로 유명한 영천 보현사 주지 해공스님의 법문집. 다양한 사회현상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불교 입문자나 현실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솔바탑 7천원〉

▲영원으로 돌아가는 길(태광스님 지음)=대비주(大悲呪) 반야심경 참회경문 등 중요한 만트라의 의미와 결실, 법신에 대한 제반 의미 등을 해설했다. 또한 헌신의 밀송(密頌; 비밀스럽게 전한 진리의 게송), 마하무드라의 밀송, 사라하의 밀송, 신보왕삼매론(新寶王三昧論) 등을 소개해 수행의 방편을 삼도록 했다. 〈한불문화출판 7천원〉

▲당시(이원섭 역해)=지난 65년 새로운 우리말 서정시로 역해한 한시집 〈唐詩〉의 개정증보판. 31년만에 나온 이번 개정증보판은 이백의 장시 '촉도난(蜀道難)' 등 4편, 두보의 '한별(恨別)' 등 9수를 새로 추가했다. 〈현암사 1만2천원〉

▲다도철학(정영선 지음)="우리의 다도(茶道)는 구도의 방법이자 그 자체였다. 차 한잔 끓여 마시는 일이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하며, 자연과 인간의 진리를 터득하게 하는 일이었다." 한국다문화연구소 정영선소장이 다도의 철학적 기반을 유·불·선·민간신앙별로 정리했다. 〈너럭바위 7천8백원〉

▲근대 수묵 채색화 감상법(최열 지음)=19세기 중엽이후 수묵 채색화와 그 시대의 화가들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했다. 내용과 형식에서 계승과 혁신을 꾀한 대표적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법고창신(法古創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폈다. 〈대원사 3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
3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순용	세계사
4	금강경 대강좌	이제열	여시아문
5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6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 화
7	禪 이야기	일 지	운주사
8	한글 아함경	고익진	동대출판부
9	49재 공덕과 의미	편집부	이바지
10	네 발밑부터 살피라	정 념	장 승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법화경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다. 아버님이 성결교회의 장로였을 정도로 온 집안이 교회일을 집안 일처럼 챙기곤 했다. 하지만 나는 어느 때부터인지 돌연변이처럼 불교를 공부하게 되었다.

부처님과의 인연은 대학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가 절로 피신을 가게 되면서 시작됐다. 자연속에 묻혀 한동안을 지내다 보니 복잡한 삶을 되돌아 보고 나 자신의 존재를 반추해 보게 된 것이다. 자신에 대한 궁금증과 '왜 사느냐'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자 이곳 저곳의 큰스님들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청하게 되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대불련 활동도 하게 되고 나름대로 수행과 경전 공부를 통해 부처님 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터는 참선보다는 경전 독송을 주로 하게 되었다. 바쁜 틈을 내어 경전을 독송하면 따로 참선을 할 것도 없이 무아지경(無我之境)에 빠져 잠시나마 평안함을 얻고 생활에 활력도 얻게 된다. 오랫동안 독송한 경은 〈금강경〉이었지만 몇년전부터는 〈법화경〉을 항상 수지독송(受持讀誦)하고 있다. 〈금강경〉도 좋은 경이지만, 〈법화경〉이 더욱 뛰어난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 성 준
(국민회의 국회의원)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으로 불리는 〈법화경〉은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전으로 알고 있다. 예로부터 모든 경전의 왕으로 인정받았고, 초기 대승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불경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천태·법화종의 소의경전이며, 현재 불교전문강원의 수의과(隨意科) 과목으로 채택되고 있는 줄 안다.

모두 7권 28품으로 구성된 이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평가되고 전승된 것은 회삼귀일(會三歸一)사상이라 한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여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들에게 각각 맞게끔 삼승(三乘)의 법을 설했지만 그것이 모두 부처의 지견을 열어보이고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시방불토(十方佛土)에는 오직 일불승(一佛乘)의 법만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법화경〉은 전체가 귀중한 교훈으로 이뤄져 있어 각 품의 우열을 논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제25품 〈관세음보살보문품〉이 관음신앙의 근거가 되어 특별히 존승을 받아왔으며, 따로 〈관음경〉으로 편찬되어 많이 독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중국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으로 유명한 〈법화경〉은 삼국시대부터 널리 유통되었으며, 고려시대 이후 공덕경(功德經)으로 위상이 확립되어 필사(筆寫) 및 간행이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법화경〉은 속세에 있으면서 현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우주의 진리에 순응하여 바르게 살며, 자기의 인격을 완성하면서 세상을 평화로운 이상향으로 만들어가는 길을 제시하는 보배로운 경이기에 불자들이 꼭 읽어보길 권한다.

인격완성 이상향의 길 제시

누구나 부처 될수 있음 천명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祈禱 기도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I.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III.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IV.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불교문화를 배우자"

만해예술학림 백담사에 9월 설립
밀교문화대학 1년과정 신입생모집
동방대·광주문화대도 전문가양성



◇불교문화대학 설립은 불교문화의 저변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동방불교대 불교미술과 학생들이 단청실습을 하는 장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적 생활환경조성에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교문화의 저변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문화대학이 종단차원에서 속속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조계종 만해예술학림이 오는 9월 설립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진각종은 밀교문화대학을 개설한다. 범패와 불화등 전문 불교음악인 및 미술인을 중점 양성하고 있 태고종 동방불교대는 올해 4년제 정규대 인가를 앞둔 체제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광주 전남지역에서 불교문화를 통한 불법홍포와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서온 광주불교교육원이 오는 3월 불교문화대학을 개설한다.

조계종이 대학원격인 학림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해예술학림(0365-462-3244)은 만해스님과 매월당 등 유서깊은 문학의 향기가 서려있는 백담사에 설립된다. 만해예술학림은 △불교문학 △범패 어산 △불교미술 △불교건축 등의 교과과정이 검토되고 있으며 2년과정으로 운영될 예정. 스님뿐 아니라 재가자도 입학할 수 있으며 한과목당 10명 안팎으로 소수 정예를 선발한다는 것.

창종 50주년을 맞는 진각종은 총인원내 밀교문화대학(02-913-0751)을 개설한다. '진각종학' '밀교학' '한국불교사' 등 종학과 불교교리를 위주로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3월 개설을 앞두고 현재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1년 코스로 수강료는 무료이다.

지난 82년 설립되어 탄탄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태고종 동방불교대학(02-763-0229)은 올해 4년제 정규대 인가를 받는대로 불교전통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입지를 다진다는 포부이다. 범패과와 불고미술과, 불교학과를 두고 있는 동방대는 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등과 시험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해 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응시자격을 더욱 강화해 명실상부한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

광주불교문화대학(062-228-9098) 역시 오는 3월 개학 예정으로 동양불교문화 한국불교문화 불교의식 등 교과과정이 다양하다. 전문가가 인솔하는 불교문화현장유적답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차 사찰음식문화 자연건강 등의 특강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

이같은 문화대학들은 현재 추진중인 한국전통문화학교, 올해 신설된 서일전문대 민족문화과, 용인대 불교미술전공과정 등과 맞물려 전통문화의 근간이 돼 온 불교문화의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확산과 전문인력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74〉

달팽이집 내게 맞아

斗屋宜吾拙 (두옥의오졸) 달팽이 집 옹졸한 나에게 맞아
支頤到夕陽 (지이도석양) 턱을 괴고 저녁나절 이르다
杜鵑啼白晝 (두견제백주) 뻐꾹새 한낮에도 우니
方覺卜居深 (방각복거심) 이 삶이 깊은 줄 비로소 알겠다

위의 시는 환성(喚醒)대사(1664~1729)의 '제초당(題草堂)'이라는 시이다. 환성대사의 이름은 지안(志安)이고 자는 삼락(三諾)이며, 환성은 당호이다.

15세에 출가하여 27세때 모운(慕雲)대사에게 참학하였다가 강석을 인계받게 되어, 사양한 나머지 할 수 없이 승계하니 사방의 법우들이 운집하였다. 당시의 사정을 문인 함월(涵月)은 이렇게 말했다.

"교의 뜻을 논하면 만경의 창파가 양양히 넘치는 듯했고, 선의 이치를 펴면 천길의 벼랑이 높이 솟는 듯하니, 지금 나라 안에서 선을 실행하고 교의에 통하는 이는 무두대사의 유풍이다" 하였으니, 당시 대사가 교계에 끼친 영향을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대사의 시문은 유집인 〈환성시집〉에 전하고 있다. 이 시집의 서문에 "(대사의)도의 본체는 산은 비어 달이 비치고, 마음의 법은 물 흘러 꽃이 핀다. 이것이 대사의 문장이니 많아서 무엇하랴" 하였다.

위에 보인 시가 바로 이 물 흘러 꽃피는(水流花明) 그 자체의 표현이라 하겠다. 초당에서 쓴다 하였으니 자신의 거처를 쓴 것이다. 두옥이라 하였으니 오막살이의 협소한 공간이지만, 이 안에서 삶을 유지하는 작자는 오히려 광활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 내 삶에 어울리는 오막살이라 함은 공간적 넓고 좁음을 떠나서 나와 거처가 딱 드러맞으니, 넓은 공간을 갖고도 여유를 느끼지 못하는 삶에 비한다면 오히려 여유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턱을 괴고 해 저물기까지 평안히 누워있는 작자라면, 공간적 여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 또한 많은 것이다.

그렇기에 그저 무심히 지나쳤던 뻐꾸기 소리가 오늘은 더욱 다정하여, 시끄러움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거처의 깊음을 새삼 더 느끼게 한다. 이 고요함을 오늘에야 깨달았다(覺)는 이 깨우침이 '평상심이 도'임을 깨우치게 하는 바로 진리의 한 글자가 아닐까.

이종찬 〈동국대 교수〉

이왈종 작품전

그림으로 보는 '色卽是空'

'생활속 중도' 주제 40여점 … 2월12일부터 가나화랑

생활속 사람이야기를 즐겨 다뤄온 중견한국화가 이왈종씨(52)가 '생활속의 중도'를 주제로 한 개인전을 갖는다. 오는 2월 12일부터 열흘간 관훈동 가나화랑(733-4545)에서 열리는 이왈종展에는 작가가 일관되게 추구해 오면서 또 다른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최근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살아가는 일에 대한 구도적 질문이 늘 저의 그림 주제입니다. 외형보다도 인간이나 자연의 본연의 마음, 내면에 숨쉬고 있는 심적 형상을 추구합니다." 그의 그림속에는 삶과 죽음 고통 사랑 증오 이기 번뇌 어리석음 등 세사에서 느껴지는 인간사의 모든 모습이 들어있다. 현실과 비현실 공간을 넘나드는 초현실성이 조형적 특징이다. 사람과 물고기 새 꽃 산 집 탑들이 원근과 대소 양감과 질감 등 실재의 사실성과는 상관없이 화면 곳곳에 자리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현실적 조형성으로 드러난다.

이번 작품전에는 특히 '색즉시공(色卽是空)'으로 이름붙여진 인간의 성을 다룬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남녀의 원초적이면서 자유분방한 성행위들이 특유의 필치로 표현되지만 결코 외설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숙〉



◇이왈종作 '생활속의 中道'(252×193cm).

기획사 '좋은벗 풍경소리'

찬불동요 노랫말 발굴 등 앞장

어린이를 위한 찬불동요집을 전문적으로 펴내고 있는 기획사 '숲'이 이름을 '좋은 벗 풍경소리'(대표 화평스님)로 개명하고 연구기능강화 등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간다.

'좋은 벗 풍경소리'는 찬불동요 작곡집·악보집 발간을 계속하며 기존 찬불가의 체계적 정리, 레크리에이션 강좌, 가수발굴, 법회의식곡 반주테이프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불자들에게 부처님을 노래하며 불교와 친근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프로그램 창출과 보급 등 연구와 교육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

풍경소리는 지난 25일 인사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성타(조계종 포교원장) 설정(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영담(풍경소리 총재·석왕사 주지) 스님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대표 화평스님은 "어린이 포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린이 찬불가대회, 좋은 노랫말 발굴 등 찬불동요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널리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730-7525

"문화유산 이렇게 상품화하자"

관광공사 책자발간



한국관광공사(사장 이경문)가 문화유산의 해에 맞춰 〈한국문화유산 관광상품화 방안〉 책자를 펴냈다. 문화관광의 비중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적으로 호소력 있는 한국 고유의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연구보고서 형식의 책자는 관광상품화대상 문화유산의 유형을 선정해 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관광상품화 대상으로는 불국사 등 세계문화유산, 안동하회마을 등 전통민속마을, 박물관 등이 꼽히고 있고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연계성과 편의시설 확보 △지역사회발전에의 기여 △원형보존과 보수 △문화재관리국, 지방자치단체 등 문화유산관리체계 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리·운영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홍보물 재작성 등 해설체계 확립 △관광안내소 확충 및 시설 인원 보강 △민간기업의 기부 및 자금지원 확대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문화원기능의 활성화 등의 선결과 △향토문화축제 활용 △기존 관광안내소기능 보강 △TV 등 언론매체 적극활용 △전통의식재현 등 문화유산의 이벤트화 △민간부문의 협력강화 등을 홍보·마케팅 방안으로 제시해 놓고있다.

안산불교미술회 창립

안산에 적을 둔 불자미술가들이 미술활동을 통해 불교홍포를 도모하고자 '안산불교미술회'를 창립했다. 안산불교미술회는 지난 20일 안산시 스타플라자 4층 음식점에서 11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에 박연범씨(서양화가), 부회장에 강대원 김유연 신재한씨, 감사에 민복식 백승돈씨를 각각 선출했다.

회장 박연범씨는 인사말을 통해 "불교사상에 근거한 기획전 등 회원들의 창작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포교를 위해 해외작가들과의 교류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산불교미술회는 오는 5월 봉축전시회, 정기수련회, 미술관련 세미나, 법사초청 법회등의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문화 소식

만해신인문학상 공모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시와시학사와 공동으로 만해신인문학상과 만해청소년시인상을 각각 공모한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높은 정신과 깊은 사상을 젊은 세대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적극 심어주기 위해 제정된 만해신인상은 시·시조·평론부문(각 1백만원·8월15일 마감)이고 청소년시인상은 중 ·고등학생부문으로 4월말까지 작품을 공모하여(시 5편이상)심사후 50명을 선정하여 5월말 백일장을 실시 수상자를 선정한다. 문의 (02)723-5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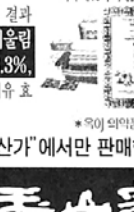
은해사 한복 무료입장

문체부가 한복입은 사람에 한해 고궁 박물관 등에 무료입장하는 혜택을 주기로 한데 이어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법타)가 사찰로서는 처음으로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해 화제. 지난 7일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소아뿐만 아니라 한복을 입은 참배객들에게도 무료입장시키고 있다.

가나아트숍 인사동 개관

전통과 화랑의 거리 인사동에 본격 아트숍이 문을 열었다. 가나화랑은 지난 20일 인사동 구 민정당사 맞은편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백평의 '가나아트숍'을 개관했다. 중·저가의 생활미술품을 주로 판매하게 될 가나아트숍은 지하 1층 조각과 공예, 지상 1층 아트·문화상품, 2층 국내외 판화, 3층은 기획전시공간으로 구분 운영된다. 080-734-1020

신흥사 '설악불교' 창간



설악산 신흥사(주지 도후)가 격월간 사보인 〈설악불교〉 창간호(1·2월)를 발행했다.

이번 창간호에는 '다시 듣는 고암노사(古庵老師)의 법음' '음식물 쓰레기문제와 발우공양'(지홍), '홍콩, 마카오 노인복지 사찰을 다녀와서'(설응) 등의 글이 눈길을 끈다. (0392)636-7044

출가·재가 학인 모집

21세기 불교 최고 지도자 양성기관인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 래

■ 접수기간 : 1월 15일~2월 15일 까지
■ 입학자격 : ① 대학이상 졸업자 ② 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③ 불교 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자 (특별전형)
■ 모집구분 : ① 출강(부산) 수·금요일 등교 ② 통신반(전국) 4째 일요일 등교
■ 교육기간 : 2년(4학기) 출강반·통신반 동일
■ 졸업특전 : ① 졸업증서 수여 ② 5종법사 자격증 수여 ③ 법화경 연구소 학술위원 위촉 ④ 강원(교양대)개원시 지원

※ 자세한 입학 안내서 우편으로 청구하면 빠른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우)701-600 대구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한국승가대학원 교무처
(대)053-952-8711 교수직통 017-501-8711

불기 2541년 1월 일

한 국 승 가 대 학 원
책임교수 최 공 덕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고 독
이자임결혼연구원

아들이
그리움 되어
노시의 끝 지점은
물들입니다

침묵과 그녀의 밤
우없이
작막은 계뜨리고
공허한 가슴에
소슬한 바람이
그대의 넓고 따뜻한 이슴이 되여
가슴으로 젖어 듭니다
슬엄버람
달빛 창기 스미는 그대 창가에
홀쉼 끝 마다
그리움으로 엉키여
가만히 내려입은
밤 이슬이 되겠습니다
여얼리
과일게 부서져 내린 파도를 업고
서로의 면 눈빛으로
젖어

그독은
너 부을 기다립니다



원장 이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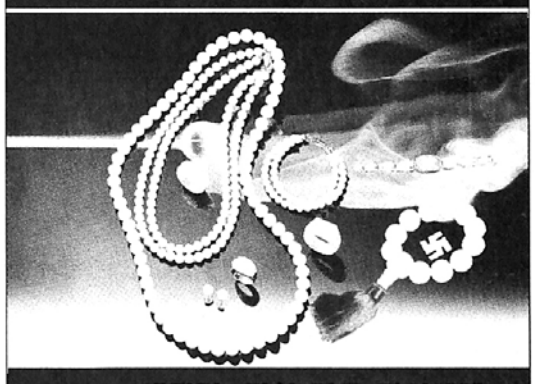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 스트레스나 피로에 쌓인 직장인, 수험생에게…,
★ 4,50대 주부의 화병, 불안, 신경질, 노화방지에…,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 장타력, 집중력, 판단력 골프머리가 잡혀갑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진옥(眞玉)제품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호신불 백의 관세음보살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을 수정관으로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 연꽃받침이 있고 연꽃받침 가운데에는 블루사파이어 보석3개가 있습니다. 또한 영구보존이 가능한 99% 순은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 「진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3개는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목에 건 관세음 보살님은 나와 이웃의 佛心을 한층 돈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획(의장등록 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02)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
호출 : 012-303-9207

여의도에 연예인 법당을…

불자가수회 올 숙원사업 재원마련·부지물색등 분주

"노래가 좋다! 불교가 좋다!"며 모인 사람들. 바로 불자가수회 회원들이다. 이들 불자가수회 회원들이 '97년 전법의 해'를 맞아 연예인법당건립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각오로 음성포교사로서의 면모다지기에 나선다.

불자가수회 올해 최대 숙원사업은 연예인들의 주활동무대인 여의도 중심부에 불자연예인들을 위한 포교당을 마련하는 것.

회장 김흥국씨는 "여의도에 포교당을 마련하게 되면 불자가수 뿐만 아니라 탤런트, 개그맨, PD, 작가, 기자 등 많은 불자들이 시간날 때마다 들러서 스님의 법문도 듣고, 친목도 도모하는 등 불교포교의 극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포교당 건립기금 마련과 부지선정 등의 문제는 회원들의 노력으로 하나 하나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자가수들 스스로가 찬불가요를 개발, 각종 방송을 통해 울려퍼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김흥국씨와 이은하씨등 몇몇 불자가수회 회원들이 찬불가요 앨범 제작을 기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어느해 보다 찬불가요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중에 널리불려지는 인기있는 찬불가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올해에는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노래로 히트곡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불자가수회 회원들 사이에서 충천해 있다.

그동안 각종 법회나 문화행사에서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온 불자가수회는 부처님 마을 자광원 양로원을 찾아 음성공양과 음식공양을 하는 등 봉사활동도 모범적으로 펼쳐왔다. 이처럼 노래를 통해 펼쳐온 신행과 봉사활동을 더욱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전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불자가수회의 올해 목표다. 또한 불자가수회는 매월 4째주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하고 있는 수요일 정기법회와 음성공양도 더욱 충실을 기할 계획이다.

불자가수회의 회원들은 김흥국씨를 비롯 장미화, 한명숙, 진송남, 이은하 등 선배가수와 김혜연, 한혜진, 편승엽, 현당 등 요즘 한창 인기몰이에 열중인 가수 40여명. 선후배간의 돈독한 우애와 신심으로 엮어갈 이들의 97년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지심참회 하였습니다"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참회의 삶'을 살자

전북불교대 동계수련대회 현장

1080배·철야정진 50여명 마음 비워내기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 살아보자" 다짐

18일 오후 2시 전북불교대학 동계수련대회 참가자 50여명을 태운 버스가 〈반야심경〉 독경과 함께 전주를 출발하여 경쾌하게 도로를 가로 지른다. 화양동 계곡을 거쳐 괴산 다보수련원에 도착한 수련생들은 법당을 참배하고 눈덮인 앞산을 보며 참회정진의 굳은 의지를 다진다.

'참회하는 마음'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 동계수련회의 마음을 비워내기 위한 참회수련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날 오후 5시 입재식에서 강건기(전북대 철학과)교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잘못 살아왔고 종지않았던 기운을 몰아내는 것이 참회수행법이다"말하고 "이번 1박2일 참회수련을 통하여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살림을 살아보자"고 말했다. 어어진 '참회하는 마음'이라는 강의에서 강교수는 "불교의 참회는 사참에서 이참까지 완전해야한다"고 밝히고 "우리마음을 뇌란시키는 업보 따리를 다보사 부처님께 다맡기고 내려갈 수 있도록 내자신을 샅샅히 뒤져 참회눈물로 청정한 마음을 갖자"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 '참회하는 마음'을 주제로 열린 전북불교대 수련대회.

오후 9시 싸늘한 겨울기운이 도는 다보사 큰법당. 사참(事懺)의 실천행인 1080배 참회및 철야정진에 돌입한 불자들의 뜨거운 입김이 거세게 일며 세차게 내리치는 죽비소리와 함께 밤은 깊어간다.

"지심참회 합니다.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다음날 새벽. 본래 마음자리에 들어가는 이참(理懺)정진에 돌입한 수련생들은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뒷산을 등산 한 뒤 참선에 들어갔다. 하나같이 본래 마음자리 찾기에 열중이다. 이렇게 20분이 흘러갔다.

이윽고 〈천수경〉독경 참회정근 후 월탄스님(용화사 주지)을 수계법사로 전체 동참대중의 수계식이 열렸다. 진한 향내음이 법당을 진동하고 연비가 진행되자 월탄스님이 대중에게 "지심참회 합니까"라고 묻는다. 그러자 수계불자들은 모두 하나되어 큰소리로 대답한다. "지심참회 하였습니다"

괴산=김원우 기자

천태종, 6부장·131개 사찰 주지 인사

종단운영 새 기틀 포석



총무 - 국성스님



교무 - 춘광스님



교육 - 도원스님



재무 - 문덕스님



사회 - 도재스님



규정 - 덕수스님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총본산 구인사 관음전에서 6부장및 1백31개 사찰주지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부장급 인사에는 총무부장 국성스님(전 교육부장) 교무부장 춘광스님(전 규정부장) 교육부장 도원스님(전 총무부장) 재무부장 문덕스님(전 사회부장) 사회부장 도재스님(전 재무부장) 규정부장 덕수스님(전 교무부장)이 임명됐다.

사찰주지 인사는 산하 1백46개 사찰중 관문사 운덕스님등 1백31개 사찰주지가 임명됐으며 현재 불사가 진행중이거나 여건이 안되는 부산 삼광사등 15개 사찰은 주지임명이 미뤄졌다.

이번 천태종 인사는 3대종정 도용스님이 처음갖는 정기인사(4년마다 실시)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번까지 형식적인 인사관행에 그쳐온 천태종이 4원장 6부장 국장 1백31개말사 주지인사를 단행, 종단운영의 새로운 모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앞두고 추진중인 종립 금강대학 설립, 올 11월 관문사 낙성, 분당에 전통형식 가람창건, 복지관건립 등을 위한 총무원 분위기 일신과 총무의 효율성이란 대명제를 달성키 위한 새로운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천태종 총무원은 10년전부터 임기제가 폐지되면서 한부서에서 10-20여년간 장기소임을 맡아왔던게 관행이었다. 이로인해 안정성은 있었으나 종단의 모습이 고정화된 이미지를 띄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와관련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사회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도시포교를 촉진시키기위해 97년내 총무원연락소를 서울에 설치하여 종단업무의 일부분을 이관하여 수도권에서도 종단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며 사찰이나 포교당 건립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이런차원에서 종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효율화를 통한 발전에 박차를 가하자는데 이번 인사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종단협과의 관계개선과 더불어 종단 역점사업인 4년제 정규대학 인가를 서두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천태종은 19일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 전국 1백46개 말사에서 한달간 실시된 신도 동안거 해제식을 가졌다. 〈구인사=김원우 기자〉

한불여행사 국내·외 영업허가 취득

태고종 한불여행사는 최근 국내외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대주주에 이규범(태고원 이사장) 종운스님(한·스리랑카 불교교류회장)을 선임하는등 체제개편과 사업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한불여행사는 불교문화교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성지순례도 동남아 불교국가의 종단과 제휴하여 양국 교류를 위한 합동기원법회 합동위령제및 불교문화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단행된 한불여행사 인사는 상임고문에 구산(국제불교문화원장) 인공스님(전 태고종 부원장)이, 사장에는 전문경영인 노희재(전 성진여행사 사장)씨가 영입됐다.

불교방송 노조 결성

불교방송노조가 지난 16일 결성됐다. 지난 22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노조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정식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불교방송노조는 1월중 정기총회를 열어 집행부를 꾸리고 창립법회등 앞으로의 추후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현재 불교방송노조원은 총 58명으로 가입대상자 가운데 65%가 참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 문화경쟁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다. 다음 세기에는 우수한 문화를 소유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니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세계각국은 이제 자국의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부각시키고 알리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문화경쟁력 강화에 열중하고 있다.

목탁소리

이 은 자 〈취재2부 기자〉

불교문화 경쟁력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듯 얼마전 한국관광공사가 '한국문화유산 관광상품화 방안'을 발표하고 97년을 관광한국의 기치를 드높이는 해로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현황과 관광적 가치파악을 통해 대표적 문화유산의 유형을 선정, 이를 적극적으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한국문화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묘안이라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관광상품화는 단순한 상업적 이익의 측면을 뛰어넘어 세계인에게 우리의 정신문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세계인이 이를 즐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해석, 발전시켜 우리의 문화경쟁력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종묘, 불국사 및 석굴암, 해인사 장경각 및 팔만대장경 등 3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우리나라 문화경쟁력의 잠재성을 입증해 보였었다.

우리문화유산의 70%는 불교문화재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계 또한 불교문화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단순한 문화재 관리와 보존수준의 틀을 깨고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수한 불교문화상품 개발과 불교문화 경쟁력 배양에 힘써야 할 때다.

아무리 많은 문화재도 적극적으로 세계인에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땅위에 굴러다니는 무의미한 돌조각이나 다를바가 없다.

'불자연예인들은 요리도 잘한다?' 불교TV와 여성전문채널인 GTV, 홈쇼핑전문채널인 하이쇼핑 등 3개의 케이블TV에서 방송되고 있는 요리프로그램을 불자연예인들이 점령하고 있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불교TV '푸른맛 푸른요리(금, 토 낮 1시 25분)'는 숙련된 조교인 불자가수 장미화씨가 비구니 선재스님과 함께 사찰요리의 비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푸른맛 푸른요리는 제목 그대로 무공해 야채와 산나물을 인공향로와 화학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천연양념으로 음식의 담백한 맛을 그대로 화면에 옮겨내는 불교TV의 인기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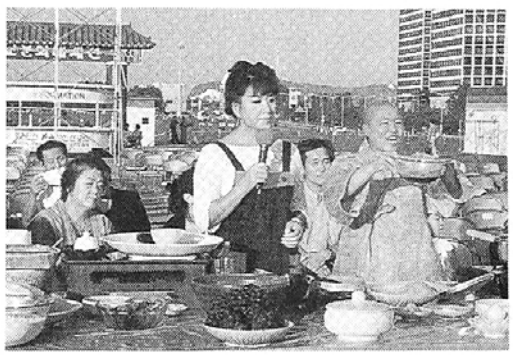
이정섭·장미화·김형곤씨 등 불자연예인

케이블TV 요리프로 '점령'

여성보다도 더 여성다운 불자탤런트 이정섭씨가 진행하는 GTV의 '이정섭 요리쇼(월~수 밤 8시)'는 토크쇼 요리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독특한 형식의 프로그램. 이 프로에서 이씨는 '영화속의 요리', '나의 입맛', '이정섭에 요리센스' 등 다양한 코너 진행으로 요리솜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관과 연기생활의 에피소드 등을 잘근잘근 씹는 듯한 입담으로 솔직담백하게 얘기하고 있다.

후발주자로 불자요리사 군단에 진입한 불자개그맨 김형곤씨도 지난 11일부터 홈쇼핑전문 케이블채널 하이쇼핑의 '김형곤의 요리특급(토요일 오후 4시)'을 통해 앞치마를 입고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요리솜씨를 한껏 뽐내고 있다.

이들 요리프로그램의 주방장으로 자리잡은 불자연예인들은 맛깔스러운 음식솜씨가 재치있는 말솜씨 못지않다는 후문이다. 〈은〉



◇천연무공해 음식조리법으로 건강의 소중함까지 되새겨주는 불교TV의 '푸른맛 푸른요리'.

황토와 약쑥의 신비하고도 뛰어난 약성성분이 내열탕기와 황토좌대에서 발생되는 원적외선 열과 함께 뜨거운 수증기로 합쳐져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방출되게 함으로써 인체 조직과의 없이 피공(皮孔)에 가장 효율적으로 침투하여 약리작용을 일으키도록 구조가 설계된 …

가정용 전통 황토 쑥 좌욕기

⊙ 전통 황토·쑥좌욕기는 좌욕기능외에 다용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좌욕효능



● 여성의 온갖 자궁병질환 및 변비, 치질 배군실등
● 남성의 전립선 질환 및 정력감퇴 빈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등

〈1日 20분 30분, 좌욕을 하십시요〉

〈2〉 미용효능



●얼굴피부속 노폐물제거피부가 뽀얗게 됨
●피부노화방지 회복 재생
●피부탄력유지 윤택튀어난 피부 잇사지 효과
●기미 여드름 검버섯등의 예방 및 제거
●비염 축농증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폐질환 우두염등

〈1日10분~15분 얼굴피부찜질을 하십시오〉



〈황토로 만든 도자기 좌대〉

· 실용신안등록원 제96-2062호
· 의장등록출원 제96-1628호

●규격 높이 27cm×직경 33cm
●전기를 사용치 않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전자파를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강화약쑥 100일분 +황토가루 100일분 포함
●좌욕기 사용시 사진과 같은 좌대를 이용하시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전통 황토·쑥 좌욕기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여 주위에 적극 권하는 현대인의 가정필수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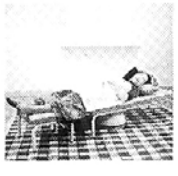
보급가 전통 황토·쑥 좌욕기 : ₩ 270,000
침 대 (별도선택사양) : ₩ 90,000

⊙ 전통 황토·쑥좌욕기를 사용시 질병치료에 탁월한 치유효능이 있다는 근거는?

●「동의보감 탕액편권3」「본초강목」「향약집성방」「신해경」 등의 옛의서에 황토와 약쑥의 탁월한 질병치료 작용과 효능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씌여있는 기록과 단군이래 수천년동안 선조들이 황토와 약쑥을 이용하여 온갖 질병을 치료해온 경험으로 축적해 놓은 민간요법을 근거한 것으로, 황토와 약쑥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황토가루와 약쑥을 염분(소금)과 함께 팔팔 끓여서 황토좌대 안에 넣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로 아픈부위를 집중적으로 쬐면 아래와 같은 질병치료에 큰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뜨거운 증기 찜질효능 〈각 질환 부위별 치료방법 아픈곳을 좌대위 구멍에 대고 찜질〉



①〈허리요통 척추질환 디스크〉



②〈어깨 목 디스크 통증 근육뭉침 결린데 담등의 질환〉



③〈골신경통 마비 시력증상 힘줄 늘어남 근육통 티박상〉



④〈다리 무릎 관절염 신경통〉



⑤〈복부냉증 긴기능질환〉



⑥〈손 발바닥 무좀 습진 피부각질 수족냉증질환〉

※ 체험치료사례모음 : 본제품을 사용하시어 효과를 보신분들께서는 본회로 치료사례를 보내주시면 1년분 약쑥과 황토가루를 보내드립니다.(주소, 성명, 전화번호, 질병종류, 치료간 기록)

"뜨겁지 않고 훈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자매품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훈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보급가격: ₩150,000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서울(02) 강남 : 553-0261~2 송 파 : 417-8922
강북 : 902-2430 종 로 : 747-7033
성북 : 942-6430 영등포 : 782-6080
반포 : 597-7581

경기지역 : 평택 : (0333)856-6856 분당 : (0347)66-0049
용인 : (0335)36-4294 과천 : (02)503-9352

부산(051) : 부산진구 : 803-0108 연제구 : 864-2900
해운대구 : 702-2621

대구(053) 남구 : 474-2828 달서구 : 635-9734
대전(042) 중구 : 222-4936 서 구 : 534-4211
동구 : 253-6446 둔 산 : 487-7245

경남지역 마산 : (0551)23-9016
김해 : (0525)24-4871
진주 : (0591)43-4655

울산 : (0522)74-7536
울산중구 : (0522)93-1973
경북지역 울주구 : (0522)85-1284
포항 : (0562)82-3155~6
안동 : (0571)53-0229

광주(062) 동구 : 228-8544
서구 : 523-1540
강원도 강릉 : (0391)645-2117

충남지역 공주 : (0416)856-6856
예산 : (0458)33-3208
서산 : (0455)63-0457
아산 : (0418)43-3510

충북지역 청 주 : (0431)273-2684
제 천 : (0443)46-3023

제주도(064) 제주시 : 22-3324

현불뉴스

노동법철회 종교인행진

안기부법 노동법 철회를 요구하는 종교인행진이 21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명동성당까지 있었다.

종교인행진에 참여한 3백여명의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인들은 행진에 앞서 조계사 법당에서 종파를 초월한 범종교인 시국법회를 가졌다.

청화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안기부법 노동법 기습처리를 성직자의 양심으로써 좌시할 수 없다는데 견해를 같이해 모인 것"이라고 전제하고 "악법이 철회 또는 재논의될 수 있도록 종교인들의 힘을 단결하자"고 당부했다.

시국법회를 마친 범종교인들은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벌이고, '현시국에 대한 종교인들의 견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국민이 경제 사회 정치적 권익을 전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 안기부법을 재개정해야 한다"이라고 천명했다.

월정사 불국사 보궐선거 결의

조계종중앙종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해)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제4교구(월정사) 보궐선거를 2월 23일 실시키로 하는 한편 제11교구(불국사) 보궐선거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 실시를 통보하기로 결의했다. 제4교구는 지난해 12월초 원행스님(삼화사주지)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현재 1석이 공석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2월 실시된 제11교구 보궐선거는 무선거권자 6명이 개입되었으므로 원칙적 무효"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은해사 교구총회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는 오는 30일 경내에서 96년도 결산보고 및 제10교구 포교단 총회, 교구신도회 창립건 등 주요 안건처리를 위한 교구총회를 개최한다.

제10교구 포교단은 경산 합양 산령 군위 청송등 5곳에 산재한 포교당을 중심으로 도심포교활성화를 위해 작년초 발족됐으며 통천사 태일스님이 단장으로 있다.

2월3일 창립법회를 가질 예정인 제10교구 신도회는 43개 은해사말사 신도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서정수 영천시의원이 초대회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독거노인에 보청기 전달

부산불교산악회(회장 한계수)는 지난 24일 쿄모도 희락정에서 대구 서울등지의 산악회 회원과 부산산악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주년 기념법회 및 독거노인 보청기 수여식을 가졌다.

우리는선우 소년가장 초청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는 다음달 1.2일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족 32명을 초청해 '용기백배캠프'를 실시한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캠프에는 선우회원 40여명도 동참한다.

"禪定문화로 미래사회 열자"

하나로포럼 선정회 25일 출범 민주·통일등 새불교운동 전개

스님·언론·학계등 지식인 80여명 동참

'한국의 선정(禪定 반야의 지혜를 얻고 성불하기 위하여 마음을 닦는 수행으로서 생각을 쉬는 것) 문화로 세계의 민주화와 평화통일, 청정국토가 조화된 민주통일정토를 구현하겠다'는 기치아래 중진스님과 사회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들이 선정문화의 이해와 실천을 통한 '미래사회 새불교운동'을 주창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경북 영천 은해사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 '하나로포럼 선정회'가 그것. 미래세계의 중심국이 될 한국의 선정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불교를 중심으로 학술 종교 예술 등 각 분야의 학제적 연구, 나아가 사회참여를 통한 민주통일정토 구현에 지식인들이 활동을 선언한 것이다.

'지금 여기, 자신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 기조발제에 나선 고준환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21세기에는 한국이 통일되고 세계문명의 중심국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간화선 평상심이 도(道)라는 생활종교 측면에서 선정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해 국가적 세계적으로 지혜와 역량을 집결, 민주통일정토를 구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몫"이라고 역설했다.

하나로포럼 선정회에는 법타스님(은해사주지, 조계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고준환(경기대 법학과) 박선영(동국대 교육학과) 심재룡(서울대 철학과) 연기영(동국대 법학과)교수가 발기인 대표로 참여했다. 또 김광삼(현대불교신문사 대표이사) 최정달(경상대 경영대학장) 김징자(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은윤(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 전창열(변호사) 조영권(경남대, 4월혁명연구회장) 윤범모(경원대 미술과교수)씨 등 언론계 학계 법조계 예술계 등에서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하나로포럼 선정회는 종단 및 정치권과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불교의 안정적 발전 및 학술 종교 예술 등 제(諸)분야를 학제적으로 연구해 비전을 제시, 궁극적 목표인 평화세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신불교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운동은 불교계와 사회가 제 모습을 잃고 있는 것은 물론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에는 터부시해 왔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불교계 지성인들이 모여 해결방안을 찾고 실천할 것을 다짐해 주목받고 있다.

하나로포럼 선정회는 25일 기념포럼, 26일 백흥암 인각사 선본사 등 문화유산순례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억원 예산으로 복원되는 분황사의 신라시대 돌우물.

분황사 삼룡변어정·보광전 복원

국비등 2억 투입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약사여래불상(도지정문화재자료 319호)을 봉안한 분황사 보광전과 삼룡변어정(도지정 문화재자료 10호)이 수리복원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보광전은 해체부식재 교체와 번와보수·기단보수를 위해 1억원, 신라시대 돌우물인 삼룡변어정 복원을 위해 도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이 각각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우물이 복원되면 참배객들은 옛날과 같이 두레박으로 물을 마실수 있게 된다.

경주시는 구체적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설계작업등을 거쳐 년내에 수리복원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未인가 승가대 졸업생 비구계수지 불허키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교육원장 원산스님은 지난 20일 공동담화문을 발표, "97년 7월 2일 이후부터는 종단의 미인가 승가대학에 입학하여 이수하였더라도 기본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원이 승려기본교육기관으로 인가한 승가대학은 동국대 불교대학 중앙승가대학 통도사 백양사 범어사 봉녕사 청암사 운문사 동학사승가대학 등 10개이며, 송광사는 인가신청을 해놓고 있다. 교육원은 학인 50명이상, 교수 5명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곳에서 7월 1일까지 인가를 신청해올 경우 기본교육기관으로 인가할 방침이다.

'평일 공무원시험' 교계 반발

총무처장관 '주일성수' 종교편향 발언 '파문'

김한규총무처장관이 국가공무원 시험을 평일에 실시키로한데 대해 조계종총무원 전국불교연합 등 불교계에서 특정종교의 편의를 의식한 종교편향 정책이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총무처장관은 지난 17일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주최 신년조찬기도회에 참석, 국가공무원시험을 평일에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조용기목사가 발행인인 '국민일보'는 17일 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김총무처장관은 인사에서 '평소 국가공무원시험 평일실시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하고 주일성수를 위해 우선 올해 7급 공무원시험을 평일에 실시키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10만여명의 응시자가 몰리는 9급 공무원시험도 평일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총무처장관실은 이와 관련, 시험일자 결정은 개신교계의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시험감독을 위해 출근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총무처는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97년도 공무원 충원 및 총무처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5백명을 뽑는 7급 공무원시험은 수요일인 8월 20일 실시된다. 그동안 개신교계는 정부측에 '국가 및 기관행사 주일(일요일) 실시 반대'를 줄곧 요구해왔다.

국가공무원시험 평일실시에 대해 교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국가의 인재를 등용하는 공무원시험을 특정종교를 의식해 시험일자를 택하는 것은 종교편향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시정을 촉구키로 했다.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특정종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국가정책이 좌우되는 것은 종교간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처사로 철회돼야 한다"며 김장관의 참회와 문책을 촉구했다.

진흥회 초파일행사 별도 추진

종단진흥회(회장 일공스님)는 지난 22일 조계종 위주로 운영되는 초파일행사에 종단협 명칭을 사용치 말것과 오는 30일 열기로 한 종단협 회의장소가 조계종 4층 회의실로 정한 이유에 대한 해명요구서를 종단협에 전달했다. 종단진흥회는 만약 이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 종단협의 해명이 적절치 않을 경우 4·8봉축행사를 진흥회에서 별도로 개최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종단진흥회의 21일 회의에는 운덕(천태종 총무원장) 남정(총화종 총무원장)대호(대한법화 총무원장) 스님등 11개 종단대표가 참석했다.



동화사 기초선원 현판

조계종의 새로운 기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기초선원이 오는 2월 개원을 앞둔 가운데 지난 21일 동화사에서 기초선원중심도량 현판식이 봉행됐다. 이날 현판식에는 월주스님(총무원장) 기초선원 조실로 추대된 진제스님(동화사 조실)을 비롯 진허스님(기초선원장) 혜창스님(총무부장) 향적스님(교육부장) 무공스님(동화사주지) 법타스님(은해사주지) 무여스님(축서사) 원융스님(해인사선원장) 휴암스님(기기암선원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보리수마을 이사회, 복지재단 합병론 제기

보리수마을, 복지재단에 합병되는가. 이사장 시현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 보리수마을의 운영 및 자금난 해결에 관계자 및 입주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 보리수마을은 지난 1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보리수마을을 조계종 복지재단(이사장 월주)에 합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결의하고, 52세대가 분양됐다. 입주금은 총 70억 400만원이 입금됐다. 부채는 건설비에 충당한 입주금 70여억원과 농협 한국부동산투자신탁 등 은행 대출금 1백억원, 공사비지급액 어음 등 총 232억여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교계에는 "불교실버산업을 시작도 못해보고 이미지만 실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단번에 불교복지를 이룩하

조계종 '신중론' 대두

부채·입주자 미확보등 뒷감당 '급급'

이사회 결의서와 보리수마을 운영계획서 등 공문을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 접수했다.

이에따른 총무원의 입장은 보리수마을이 232억여원이라는 엄청난 부채 등 민감한 사안을 안고 있는 점을 감안 신중론을 펴고있다.

보리수마을은 교계 최초 메머드 유료노인종합복지시설이라는 화려한 포장과는 달리 계속되는 자금난과 사회적 인식부족에 따른 입주자 확보의 어려움, 교계의 무관심 등으로 곤란을 겪어왔다.

보리수마을은 현재 3백60세대중 평생회원 116세대, 휴양회원겠다는 성과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처음부터 역부족인 사업을 무리하게 벌였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 "조계종 믿고 들어온 입주자들은 사기당한 것과 진배없다"라는 극단적인 지적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임시 이사회에서는 현행 이사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키로 하고, 정각스님(울산 도솔암주지) 명신스님(강화 보문사주지) 종림스님(혜림정사주지)을 새 이사에 영입했다. 이사영입에 이어 정각스님을 이사장 권한대행에, 명신스님을 상임이사에 선출했다. 〈필〉

마음 백척간두에 서서

백척간두에서 한 발 내딛고 나서지 못하면 참자기을 발견할 수 없다. 자기라는 관념이 없어야 한 발 뗄 수 있을 것이나 자기라는게 있으면 온작달싹도 할 수 없다. 죽고사는 것을 몽땅 떨기고 떨는다면 내딛지 못할 까닭이 없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불자의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 크기 : 6cm×7.5cm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 크기 3.5cm×10.5cm

■ **보급방법**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 급 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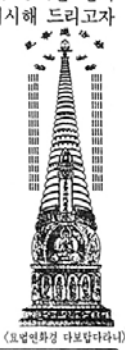
"100분의 스님을 모십니다"

①전국 100군데 시·군단위로 현재 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 한 분씩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②신비의 불탑다라니는 현재 각사암별로 스님들께서 스님 신도들에게만 보급하고 있아오나 100분의 스님들께는 지역내의 전불자들에게 불탑다라니의 영험과 공덕을 알리고, 큰 부담없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이 방법은 불사에도 도움이 되고, 신도포교에도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③전화주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내용을 검토하신후 여건이 합당하시다는 판단이 되시면 연락주시는 순서대로 일자를 정하여 직접 찾아 뵙겠읍니다. 한 지역에 한 분 스님께만 정책적인 배려를 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회장 혜원)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받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픈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십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파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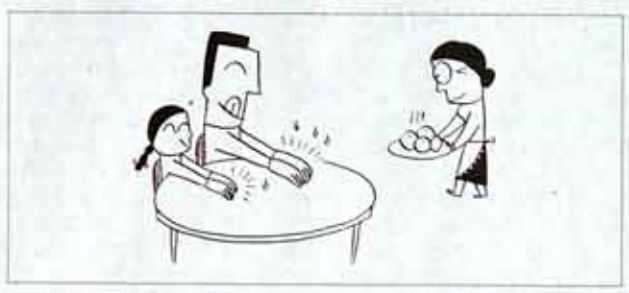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백세 ㊳

기생충 잠복장소 청결한 위생 필요
배꼽노출 복통·설사·변비 주요요인



작은창자

소장은 십이지장을 통과해 내려온 음식물이 대장으로 가기전에 머물면서 영양분이 흡수되는 창자이다. 이름은 소장이지만 약 6m 정도의 길이를 갖는다. 인종과 연령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채소와 같은 식물성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장은 그 기능과 위치에 따라 십이지장의 하부와 연결되는 부분을 공장(空腸)이라고 하며 아래로 맹장부와 접속되는 쪽을 회장(廻腸)이라고 부른다.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은 췌장과 간장 등에서 분비된 췌액(膵液)과 담즙(膽汁) 그리고 소장자체의 점막(粘膜)에서 분비되는 장액(腸液) 등의 작용으로 거의 완전하게 소화된다. 소화된 음식물은 구조가 간단한분자 상태로 되어 소장의 융모(絨毛=융털돌기)를 통해 흡수된다. 특히 소장은 음식물 중 염산을 만나면 췌액을 분비하게하는 세크레틴을 만들고 지방을 만나면 콜레시스토카이닌 이란 담낭수축물질을 생산하며 당분이나 지방을 만나면 위액분비를 억제하는 엔테로 카스트론을 만들어 내는 등 흡수기능만이 아닌 소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중요기능을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소장을 심장과 표리(表裏) 관계로 설명하였다. 이는 심장으로 대표되는 혈액공급기능과 연관되는 것으로 신경을 만히 쓰는 경우에 소장부위에 빈혈상태가 되어 흡수부전을 일으키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다. 서양의학에서는 소장의 운동이 지나치거나 소화액이나 담즙 분비의 저하 또는 소장내의 염증으로 설사가 나게 된다고 설명하는바 이는 복부에 혈액공급이 원활치 못해 죽처럼 된 음식물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치 못해 일어난다는 이론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심한 복통을 일으키며 배변시 악취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대개 이런 경우에 해당되며 한의학에서는 복냉증(腹冷症)으로 보는데 배꼽부위를 따뜻하게 보온해 주거나 쑥뜸 등으로 온자극(溫刺激)을 해주면 의외로 쉽게 통증이 해소되며 소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소장에는 회충등 영양을 탈취해가는 기생충이 꼬이기 쉬운 곳이므로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야채, 음료수 등의 선택에 유의하는 등 생활위생이 절대 필요하다. 최근에는 인분(人糞)을 사용하는 농가가 거의 없게 되어 다행이지만 역시 청결해야 한다.

쑥이나 인삼, 후박 등의 한약재는 복부 보온이나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상식화 되다시피 되었고 산초나 매실등은 소화효소 분비 촉진과 안전한 구충 작용까지 하고 있어 체질에 맞게 응용해 봄만하다.

요즈음 배꼽을 노출시키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유행이나 패션에 구태여 참견하고 싶지는 않지만 냉복통이나 설사 또는 냉성변비 등이 발생하는 일이많아 외학적으로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아니함을 밝히고 싶다. 모체로부터 영양과 호흡까지 공급 받았던 배꼽을 독립개체가 되었다하여 외부로 노출시켜가며 혹사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효도차원에서도 삼가 야 할 것이다.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양이 흡수되고난 찌꺼기는 대장을 향해 내려가게 된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새싹들에게 주는 약 ③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본사 사장상〉

매일 참회하고 불경 가까이하는 삶
남 이해하고 베푸는 마음 생기고
시댁·친정식구 모두 불자가 되고…



그림 · 이준석

잠이 깊이 들기 전까지는 참회진언 광명진언 외우기, 참회하며 방생기도, 철야정진 기도, 야외법회에 동참해 야단 법석에서 들던 큰 스님들의 환희스러웠던 설법…. 〈지장경〉을 읽으며 조상천도재도 수없이 지내 드렸고 어언 〈지장경〉 1천독을 마쳐갈 무렵까지 수없는 가피를 받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사워하고 조계사로 가는 버스 속에서, 퇴근후 집에 가는 버스 속에서, 어느 시간이나 짜투리 남는 시간에는 〈지장경〉을 읽었고 걸을때는 참회진언, 광명진언, 멸업장진언 등을 외우는 등 부처님을 떠나서는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갈증이 났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계사 기초 교리 1기 야간 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퇴근후 집에 급히 달려와 저녁을 지어 차려 놓고 다시 버스를 타고 조계사에 와서 7시부터 9시까지 공부를 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불교 바로 그곳이 극락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가족들에게 "해도 너무한다", "미친것 아니냐", "잘하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겠다"는 비난도 수없이 받았지만 마장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견디며 정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스스로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잘못된 일이 모두 나에게서 비롯 되었음을 알았고, 남의 탓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치하던 마음이 검소해졌습니다. 주는 법이 생겼다고 할 정도로 남의 입장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마음과 베푸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절에서 시작하는 불사에는 능력껏 모두 동참했습니다. 마흔살까지는 일하는 사람 두고 살았고, 그 후에 과출부 손에 맡겼던 살림살이를 제가 했어야 함을 알았고 그동안 진 빚을 갚기 위해 집과 학교에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까지도 불사로 알고 제가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 지낼때면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고 투덜거리며 장만하던 제가 지금은 참회하며 목욕하고 장보기부터 시작 합니다. "비싸도 좋아요, 제일 좋은 것으로요"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니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오시면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온전해 지고 나니 이해와 사랑속에서 가족들의 마음도 모두 평화로웠습니다. 또 부처님께 일심으로 기도 드리면 위신력으로 모든것이 원만 성취됨을 알았습니다. 재수하던 큰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고 불교 써클 회장을 맡으며 정진하고, 엄청난 교통사고 중에서도 남편과 큰 아이 모두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났던 기적 같던일, 작은 아이의 한의대 입학 등 부처님의 가피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10년동안 크고 작은 기도에 동참해 주며 일요법회에 꼭 참석해 법문을 들은 후에야 사적인 약속을 하고, 작년 9월에 결혼한 큰며느리도 〈법화경〉 사경을 하며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내생이 어디 있니? 살았을때 하고 싶은대로 하다 죽는거지" 하시며 저를 원망하셨던 시어머님까지도 요즘은 경을 열심히 읽으십니다.

명동성당에 15년이나 다니면서 중추역할을 했던 친정 사촌 여동생을 절로 인도해 지금은 저보다 더 착실하게 정진하며 그들 가족 모두가 방학마다 가족 수련법회를 다녀온 후 다른 계획을 잡는 것을 볼 때는 저는 저절로 합장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가 수없이 나옵니다. 남동생들도 모두 절에 다니며 나름대로 법회 참석을 하고 있고, 한달에 한번은 부석사에 가서 가족 철야정진을 할 정도가 되었으니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큰 조카는 초등학교 6학년때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을 외우도록해서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4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8배 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석을 놓치지 않는 신심 깊고 안정된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불교를 믿은 10년동안 시댁·친정 모두 장법으로 불가(佛家)가 이루어 졌습니다. 실로 큰 가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갓 시집온 사촌 동서들도 성당에 다녔다는데 숙모님과 제가 나서서 모두 사경하며 기도하는 올바른 불자로 인연맺게 되었습니다.제사때 새집 식구가 모두 모여 〈반야심경〉을 봉독할 때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열심히도 기도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불법을 왜 나는 이제서야 만났을까?" 조바심이 나며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이 영 자
〈서울 강북구 수유 5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㊽

♦ Whosoever is firm, like a straight shuttle, and is disgusted with evil actions, reflecting on what is just and unjust, him the wise style a Muni.

베짜는 북처럼 변함없이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 Whosoever is self-restrained and does not do evil, s young or middle-age Muni, self-subdued, one that should not be provoked as he does not provoke any, him the wise style a Muni.

자제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젊을 때나 중년이 되어서도 성인은 자신을 억제한다. 그는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한테서 괴로움을 받지도 않는다.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 Whosoever, living upon what is given by others, receives a lump of rice from the top, from the middle or from the rest of the vessel, and does not prise the giver nor speak harsh words, him the wise style a Muni.

남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고 새 음식이거나 먹던 음식이거나 남은 찌꺼기를 받더라도, 먹을 것을 준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화를 내어 욕하지도 않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 The Muni that wander about abstaining from sexual intercourse, who in his youth is not fettered in any case, is abstaining from the insanity of pride, liberated, him the wise style a Muni.

성의 접촉을 끊고, 어떤 젊은 여성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스스로 득의(得意)했다는 자만심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firm (a) 흔들리지 않는, 변치않는, 확고한
*shuttle (n) (베틀 · 책봉틀의) 북
*reflect (v) 곰곰이 생각하다, 반성하다, 숙고하다
*provoke (v) (사람 · 동물을)화나게 하다(=vex), 악 을리다, 괴롭히다
*lump (n) 덩어리, 한덩이('a lump of'는 불가산명사의 수량단위)
*harsh (a) 귀(눈)에 거슬리는, 가혹한, 엄한
*abstain (v) 끊다(~from), 삼가다, 절제하다
*insanity (n) 어리석은 짓(행동)

오중욱 기자

지혜의 빛 자비의 샘, 불교텔레비전

불교TV!
주식공모에 동참합시다

미래불교를 선도하는 불교텔레비전이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불자주식청약을 접수합니다. 불자 모두가 주인인 불교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해 벽돌 한장 쌓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 기 간 : 96. 11. 1 ~ 97. 2. 20
■ 청약방법 : 1구좌 10만원 이상, 지로용지를 이용 전국의 우체국 및 농·수·축협을 포함한 시중은행에서 접수
■ 청약서 교부처 : 전국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및 부산지사

※각 은행의 지로용지를 이용하실 분은 지로번호 7614677를 적어 넣으시고 성명과 전화번호 등 첨액수를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을 원하시면 신한은행 334-05-011307(예금주 : 불교텔레비전)의 연결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

buddhist television network

케이블TV 설치 문의처
■ 서울지역 강남케이블TV 강남구 518-3000 강동케이블TV 강동구 4741-115 강서케이블TV 강서구 3663-1414 구로케이블TV 구로 공단구 830-8300 금악케이블TV 금악구 877-5000 노원케이블TV 노원구 934-2366 동대문선합방송 동대문구 215-0114 동작케이블TV 동작구 433-2121 송파케이블TV 삼동 송전구 488-6000 동작케이블TV 동작구 824-6080 서초케이블TV 마포구 717-1125 서대케이블TV 도봉 강북구 999-5555 북부케이블TV 성북구 942-0001 서서울케이블TV 서대문구 305-0101 서초케이블TV 서초구 529-8252 송파케이블TV 송파구 318-2700 우리종합유선방송 송파구 419-3000 은평케이블TV 은평구 388-8000 중앙케이블네트워크 중로 중구 753-6781~3 한강케이블TV 강동 동구 634-3200 한국도선케이블TV 양천구 645-2222 부산지역 금정케이블TV 금정구 515-6140 낙동케이블TV 강서 사상 북구 326-8112~6 동남케이블TV 남 수영구 620-5000 범천케이블네트워크 부산진구 640-8585 부산케이블TV 동래 연제구 555-0300 서부산케이블TV 서 사하구 293-8200 중부산종합유선방송 중 동 동래구 412-0666 해운대케이블TV 해운대구 746-1122 대구지역 금호케이블TV 북구 963-6000 동구케이블방송 동구 985-7777 대구케이블네트워크 중 남구 656-5555 서대구케이블TV 서구 567-6000 수성케이블방송 수성구 768-8888 우성케이블방송 달서구 651-2000 인천지역 남동케이블TV 남동구 422-4757~9 남부종합유선방송 연수 남구 575-0307 북인천케이블TV 부평 계양구 551-9300 서인천케이블TV 서구 582-3211~4 서해종합유선방송 중 동구 761-9999 광주지역 광주케이블방송네트워크 북 북구 512-4433 광주케이블TV 08호채널 서 남 광산구 370-5700 대전지역 대전케이블TV 대덕 동구 673-3322 한밭케이블TV 중 서 유성구 322-8356~1 기타지역 수원방송국 수원 257-4011~5 (주)강원케이블TV 춘천시 중앙 철원 화천 양구군 242-2131~2 청주종합유선방송 청주시 청원군 271-3000 천안케이블TV 천안시 천안군 551-9991~6 전주케이블TV 전주시 완주군 260-6660 서남방송 목포시 신안 무안군 (1)6-7777 강북케이블TV 포항시 경북 영일군 251-7777 경남케이블TV 창원 진해시 67-6900~4 제주케이블TV 제주시 북제주군 41-7777